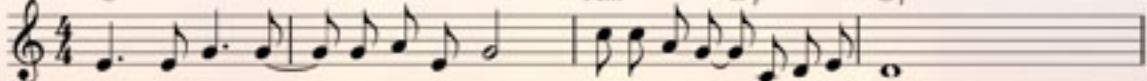
장군님의 유훈과 경제강국건설

성천강출하사업소

처녀유술영웅의 보금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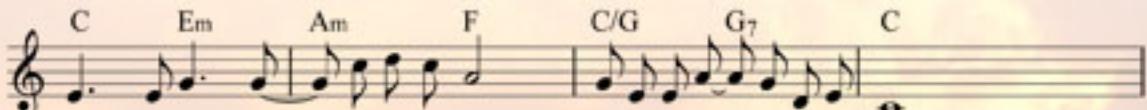
조선봉건왕조

릉라유희장의 전자오락관에서

금수강산

2

주체103(2014)

루계 제294호 월간

 ISSN 1727-9062

인민은 일편단심

2. 천만고생 다하시며 품에 안아 키운 사랑
꿈결에도 잊지 못해 참된 의리 지켜가네
장군님의 뜻으로 변함없이 변함없이 사는 마음
(후렴)

3. 한생토록 지킨 마음 대를 이어 물려주며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한길만을 걸으리라
장군님의 그 위업 충정다해 충정다해 받들 마음
(후렴)

차 례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2010. 2)

장군님의 유훈과 경제강국건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인민들은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 이것은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 한생토록 간직해오신 념원이며 유훈이다.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기어이 경제강국을 건설해나가려는 인민들의 열의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고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억센 기상과 열화와 같은 인민사랑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면서 온 나라 전체인민은 오늘의 번영의 시대를 위해 생애의 마지막까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업적이 얼마나 거대하며 고귀한 재보인가 하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다.

김책과 함흥, 락원과 강계 등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위대한 장군님의 발걸음이 가닿지 않은 곳이란 없다.

더우기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이룩된 비약적인 발전은 공화국의 오늘을 우주의 높이에 올려세운 새 세기 산업혁명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주체87(1998)년, 엄혹한 조국의 현실이 제기하는 시대의 물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을 무겁게 하였다. 고난의 행군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자면 과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때 나라에는 얼마간의 자금밖에 없었다.

장군님께서는 그 자금으로 식량이 없어 고난을 겪고있는 인민들부터 당장 먹여살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것은 아니였다. 하지만 그이의 시선은 조국의 앞날, 인민의 행복이 꽃펴날 미래의 언덕으로 향하고계시였다.

떨어지면 기술의 노예가 되고마는 지식경제시대인 오늘날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인민의 영원한 행복을 마련하자면 최첨단돌파전에 나서야 하며 그러자면 기계제작공업부터 CNC화하여야 한다는 결심이 우리 장군님의 뇌리에서 떠날줄 몰랐다.

장군님의 그 력사적인 선택을 말없이 떠밀어준 거대한 힘, 그것은 전후복구건설시기 기계에서 밥이 나오는가고 떠벌이던 일부 사람들에게 기계에서 밥도 나오고 천도 나오고 별의별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였다.

인민들이 고생하는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도 장군님께서는 그 귀중한 자금을 기계제작공업의 현대화에 돌리기로 하시였다. 장군님의 결심이 옳았다는것은 오늘 나라의 경제발전이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렇게 사회주의터전에 손수 묻으신 애국주의씨앗이 지금은 조국을 받드는 거목으로 자라 무성한 아지를 펼치고있다.

2. 8비날론련합기업소에서의 비날론생산, 남흥과 흥남에서의 주체비료생산, 철의 기지들에서의 주체철생산…

지난해 주체102(2013)년 한해만 돌이켜보아도 참으로 커다란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였다.

조국인민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인 농업과 경공업부문에서 농업생산과 인민소비품생산을 훨씬 늘이였고 특히 대홍단군에서 례년에 보기드문 감자작황을 마련하였다. 고산과수농장과 세포등판을 비롯하여 과수와 축산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고 채취기계공업지도국과 잠업비단지도국, 은률광산 등에서도 지난해 계획을 훨씬 앞당겨 결속하였다. 뿐만아니라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수많은 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서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었다.

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생활을 높여나가는 그 나날에 조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함께 계시였다.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들리는 인민의 리익과

CNC공작기계들이 생산된다.

여러가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 인민의 참된 복무자 등의 말속에서도, 그 어느 일터, 어느 가정에서나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서도 장군님의 령도의 손길이 따뜻이 느껴지고 축복이 넘쳐흘렀다.

철의 기지들에서 용을 쓰는 초고전력전기로들을 보느라면 로동계급의 심장에 대고조의 정신을 심어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붉은 노을속에 어려오고 CNC기술의 령역을 과감하게 넓혀나가는 사람들의 돌격열풍앞에 서면 고난의 시기에 오늘을 내다보며 최첨단돌파전의 씨앗을 묻으시던 장군님의 영상이 눈물겹게 안겨온다.

희천과 룡림의 언제우에 서보면 하루빨리 경제강국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심심산중의 강줄기 하나하나까지 헤아려보시며 발전소들을 건설할 명당자리들을 찍어주시고 경제건설에 필요한 전력량까지 세심히 계산해주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어려온다.

돌이켜볼수록 가슴이 뜨거워진다.

온 나라에 타번진 공격속도, 강행군보폭에 투쟁과 전진의 발걸음을 맞추며 《마식령속도》로 폭풍쳐 내달려 이룩된 지난해 성과들은 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대로 세계를 굽어보며 최첨단을 향하여 대담하게 앞으로만 나아간데 있다.

우리 다시금 뜨겁게 외워본다.

김정일애국주의, 백두산대국, 새 세기 산업혁명, 사회주의부귀영화, 단숨에, 최첨단돌파전, 최후승리, CNC화…

조국인민들모두를 끝없는 분발에 살고 불같은 애국에 살도록 떠밀어주는 시대어들치고 장군님의 숨결을 떠난 말, 장군님의 생애와 이어지지 않는 투쟁용어란 하나도 없다.

조국인민이 애국의 열정속에 일떠세운 수많은 창조물들, 세계를 놀래운 민족사적기적은 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빛나는 결실들이다.

1 647회에 걸쳐 연 39만 8 000여㎞에 달하는 궤도를 달려온 야전렬차는 장군님의 고귀한 한생을 오늘도 말해주고있다.

어느해 설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나도 인간입니다. … 그렇지만 나는 모든 일군들과 전체인민이 나를 믿고 나에게 모든것을 의탁하고있기때문에 동지들을 위해서,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생활도 다 희생시키고 집을 떠나온 한해를 차안에서 쪽잠으로 새날을 맞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년내내 현지지도의 길에 있습니다. …

장군님께서 인민의 심장속에 지펴주신 애국의 불길, **김정일**애국주의는 오늘도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사랑하는 조국땅우에 모든것이 흥하고 누구나 잘사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조국인민들의 열의는 반드시 훌륭한 열매를 안아오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한신애

타일생산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지난해 10월 준공의 테프를 끊은 문수물놀이장으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

창밖에는 펑펑 흰눈이 내려도 봄날처럼 따스한 실내물놀이장이다.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은 계절도 잊고 시간 가는줄도 모르는듯 하다.

전설속의 룡궁인가, 하늘나라의 선녀, 선남들인가.

형형색색의 물미끄럼대를 타고 날아내리며 물보라를 휘뿌려가는 시름없는 저 모습들, 쉼없이 솟구쳐오르는 파도수조의 세찬 물결처럼 끝없이 메아리쳐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인민의 행복스러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듯, 밝은 그 웃음소리를 들으시는듯 환하게 미소를 짓고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흰파도설레이는 푸른 동해바다가 해당화 피여웃는 모래불우에 우리의 장군님께서 생존의 모습그대로 서계신다.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낯익은 그 잠바옷차림이며 가장 기쁘고 만족하실 때마다 가지시던 몸가짐도 그대로이시다.

실내물놀이장의 홀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이의 천연색석고립상을 우러르며 누구나 마음속격정을 터뜨린다.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민위천의 뜻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이 누려갈 행복의 씨앗들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심고 가꾸어오신 그이의 넓은 품에 달려가 안기는것만 같다.

인민을 위한 훌륭한 창조물들이 세워질 때면 제일 먼저 찾아주시여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주시던 그이의 친근한 음성이 귀전에 울려오는듯 싶다.

모든것이 다 갖추어진 종합적인 물놀이장을 잘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에게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고싶으신것이 장군님의 념원이였다.

그이의 념원은 문수물놀이장의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이 땅에 현실로 꽃펴났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는 어머니의 심정그대로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가시는 길에서 언제나 만족을 모르시였다.

자신께서는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고 한다고, 앉으나 서나 누우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민을 위할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늘 외우신 그이이시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었고 명절날, 휴식일을 모르시였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와 토지정리된 무연한 논과 밭들, 칠보산과 구월산, 울림폭포, 중앙동물원…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개선청년공원유희장과 하나음악정보쎈터, 광복지구상업중심 등을 찾아주시여 인민들이 좋아하는가고 물어주시며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이의 모습을 세월이 흘러도 인민은 정녕 잊지 못하고있다.

오늘도 해빛같은 미소로 조국땅을 굽어보시며 인민들을 한품에 안고계시는 어버이장군님.

한평생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으시며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인민사랑의 새 전설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우리 조국은 인민들모두가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문명국을 건설해나가고있다.

오늘 조국땅에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바라시던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하나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며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옥류아동병원이며 류경구강병원, 미림승마구락부, 마식령스키장, 세포등판의 전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조선로동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인민을 보다 잘살게 해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걷고걸으신 장군님께서 마음을 놓으시고 환하게 웃고계신다.

진정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어버이장군님의 해빛같은 미소가 안겨오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는 조국인민들은 이렇게 심장으로 웨치고있다.

—《우리 장군님께서 기뻐하신다!》

본사기자 려해

수 기

추억의 갈피를 더듬어

이제는 내 나이가 팔순을 가까이하고있다.

한해, 두해 나이가 덧쌓여지고보니 지나온 삶에 대한 추억을 자주하게 된다. 아울러 나의 한생에서 가장 잊을수 없는 분, 그이의 모습을 후대들에게 꼭 전하고싶다.

주체68(1979)년 2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당시 만수대예술단 남성중창조 성악배우였던 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만수대예술극장에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였다. 무대에는 내가 가사를 지은 노래 《2월의 명절을 축하합니다》가 합창으로 올랐었다. 그때 노래가 끝난후 그이께서는 나를 찾으시여 노래가 좋은데 가사를 4월의 명절로 고쳐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왜 자신의 심정을 그리도 몰라주는가고 심중히 말씀하시였다. 그래서 나는 수령님의 탄생일(4월 15일)까지 4월의 명절노래를 새로 지을 결심을 그이께 말씀올리였다.

그후 나의 사색은 가사창작에 집중되였다. 비록 문학계의 전문작가는 아니였지만 그이께 올린 결의에, 보다는 나의 마음을 지지해준 그이의 믿음에 어긋날수가 없었다. 한 구절을 짓다가는 또 지우고 하나의 표현을 써놓고는 온밤을 새우고…

마침내 나는 노래 《축배의 노래》를 완성하고 거기에 곡을 붙이였다.

노래가 완성된후 그이께서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다 들어주시고 노래가 정서가 깊고 선률이 평이하게 잘되였다고 기뻐하시면서 제목을 《축원의 노래》로 고치도록 해주시였다.

노래는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이 작품을 창작하던 한달남짓한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수년간과 맞먹는 창작수업과정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 귀중한 나날이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주체84(1995)년에도 있었다.

그 시기로 말하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뜻밖에 서거하신지 1년이 되던 때였고 동시에 반공화국적대세력이 때를 만난듯이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과 침략, 제재와 모략책동을 벌리며 《조선의 붕괴설》을 떠들던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그무렵 나는 우리 인민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받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던 항일의 나날 사령부를 목숨으로 보위한 오중흡7련대를 형상한 가사 《오늘도 7련대는 우리앞에 있어라》를 창작하였다.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시켜주시기 위해 세심한 지도를 주시였다. 처음 남성중창으로 형상했던 노래를 합창으로 할데 대한 방도를 가르쳐주시였고 여러차례에 걸쳐 노래도 들어주시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어느날 새벽에는 친필로 가사의 3절에 있는《주체위업 빛내갈》을《주체위업 받드는》으로, 《**김정일**장군님 안녕을》을 《내 나라 내 조국 부강을》으로 수정해주시였다.

비록 가사에서 그이의 존함이 빠진것이 아쉬웠지만 나는 그때에야 비로소 수령님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끝까지 받들어나가실 그이의 숭고한 뜻을 절감하게 되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이 노래는 우리 혁명무력의 군가나 같다고 하시면서 노래가 창작되여 열두해가 지난후에 이르기까지 무려 아홉차례에 걸쳐 높은 평가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이는 바로 이런 분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화국책동을 물리치며 조국과 민족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으시면서도 언제나 자신을 수령의 위업을 받드는 전사로 여기시였다. 하기에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신 그이이시였다.

이렇듯 한없이 고결하신 그이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우리 인민들은 자기의 삶을 참되게 빛내여왔다. 어제날 청진제강소(당시)에서 일하던 나도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배우가 되여 국제무대에서 이름을 떨치게 되였고 어릴적의 문학적재능을 꽃피워 가사 《예쁜이》를 비롯한 30여편의 작품과 더불어 인민들이 기억하는 인민배우로, 만수대예술단 단장, 국가예술지도기관의 일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할수 있었다. 오늘은 만수대예술단 고문으로 사업하고있다.

일 화

원화리의 언덕길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걷고걸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원화리의 언덕길에도 새겨져있다.

어느해 2월 16일이였다.

장군님께서는 탄생일 하루만이라도 휴식하시기를 바라는 일군들의 간청을 마다하시고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리로 떠나시였다.

그이께서는 섭섭한 마음을 금치 못해하는 일군들에게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원화협동농장의 올해 농사차비가 어떻게 되였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였다고, 수령님께서 원화리를 시범적으로 잘 꾸려서 온 나라에 일반화해야겠다고 벌써 몇번씩이나 말씀하시였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마음은 원화리로 달려간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원화리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그곳 일군들에게 농사차비정형도 알아볼겸 도와줄것이 있으면 도와주자고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과수원 언덕길로 오르시였다. 그러시고는 한동안 마을전경을 둘러보시며 전후에 비하면 원화리가 정말 천지개벽을 했다고, 수령님의 로고가 이르는 곳마다에 깃들어있는 고장이라고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다. 정보당 알곡수확고며 고기와 과일생산량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 정말 원화협동농장에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시였다.

잠시후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내가 오늘 원화협동농장에 나오기 잘하였습니다. 동무들은 오늘이 나의 생일이라고 나를 붙잡아놓으려고 하였지만 원래 나는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전사가 무슨 생일을 쇠겠습니까.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릴 일감을 찾아냈을 때가 나는 제일 즐겁고 기쁩니다.》

짧은 겨울해는 어느새 서산마루에 기울어지고 쌀쌀한 랭기가 옷깃속으로 스며들었다.

하건만 장군님께서는 돌아가실념을 하지 않으시고 농장에서 당면하게 해야 할 일들과 전망적인 과업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농사차비를 더욱 다그쳐 농사를 더 잘 지을데 대하여, 마을을 사회주의문화농촌답게 잘 꾸릴데 대하여 그리고 과수업을 적극 발전시킬데 대하여…

그이께서는 원화리의 파일나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파일나무들인것만큼 각별히 잘 가꾸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눈우에 그림까지 그려가시며 비료주는 방법, 가지자르는 방법, 풀잡는 방법 등 파일나무비배방법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였다.

어느덧 사위에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는듯 이슥토록 원화마을을 바라보시다가 농장일군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더니 자신께서도 도와주겠으니 힘을 합쳐 원화마을을 문화농촌의 본보기로 만들어 수령님께 꼭 기쁨을 드리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후 원화리는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더욱 훌륭하게 변모되였다.

오늘도 원화리의 그 언덕길은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길이 전해가고있다.

*　　*　　*

지금도 그이를 모시고 찍은 많은 기념사진을 우러를 때면 40년전 나에게 하신 그이의 말씀이 가슴을 울린다. 그때 나는 그이의 눈이 너무도 충혈되여있는것을 보고 건강을 돌보실것을 아뢰이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요즘 며칠째 글을 쓰느라고 밤을 새워서 그런다고, 자신은 일없다고 하시며 도리여 동무들이 한살, 두살 나이먹는것이 아깝다고, 이제 더 늙지 말라고 따뜻이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새길수록 가슴이 미여진다. 그이의 사랑속에 인민은 젊음을 노래하건만 어찌하여 그이께서는 인생의 일흔고개도 넘지 못하시고 우리곁을 먼저 떠나셨는지 눈물이 솟구쳐오름을 억제할수가 없다.

나는 후대들에게 말하고싶다.

—장군님께 생전에 수여해드리지 못했던 대원수칭호를 그이의 령전에 올리게 된 우리 세대들의 마음을 부디 용서하라고 그리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부디 잘 모셔야 한다고.

그 길에서 나도 장군님께서 나에게 수여해주신 수령님의 존함이 모셔진 시계처럼 변함없이 남은 생을 다 바쳐가겠다.

만수대예술단 고문 박영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오늘 조국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라는 성스러운 장을 펼치며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이 성스러운 위업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위인의 높이는 사상의 높이이다.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사업하시는 첫 시기부터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만민의 심장을 뜨겁게 틀어잡으신 분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1(2012)년 한해동안에만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비롯한 10여건의 로작을 발표하시였다.

그이의 로작들에는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문제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된다는 고전적정식화를 비롯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완벽하게 주어져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계승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그이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김일성**주의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립하시고 절세위인들의 사상리론적업적을 집대성하시였다.

우리 시대 혁명리론의 새 경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리론활동은 철저한 계승과 대담한 혁신, 확고한 원칙성과 비상한 창조성으로 관통되여있다. 비범한 예지와 혁신적안목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투쟁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건설에서 질을 높일데 대한 문제,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켜 강성국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문제, 산업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주체101(2012)년 4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 공개연설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쳐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하시였다.

나라의 백년대계의 전략을 세운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시대에 와서 나라의 앞날을 100년은 고사하고 10, 20년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만큼 시대의 발전속도가 진척되고있는것이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 한다는것은 주체100년사의 력사적총화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조선혁명의 곧바른 진로를 처음으로 펼쳐주신 주체혁명의 개척자이시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수령님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시여 조국을 자주, 선군, 사회주의로 존엄높고 번영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빛내이신 걸출한 령도자이시였다.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들고 혁명활동을 시작하시고 그 길에서 한생을 총화하신 분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시다.

가장 옳바른 진로를 따라 전진하여온 조국의 혁명투쟁사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길만이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하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길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기네신문 《호로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선대수령들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그 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한치의 양보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계승완성하시려는것이 **김정은**각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그이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나아갈것이다.

천재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그 승리의 활로를 개척해나가시는 그이의 사상리론활동이 조국땅우에 더 큰 기적과 혁신을 낳으리라는것은 믿어의심할바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호소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3(2014)년 1월 1일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한없는 그리움과 뜨거운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리신 다음 지난해에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지난해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병진로선을 받들고 총공격전을 벌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자랑찬 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군대와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내이고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에 즈음한 정치행사들과 지난해 투쟁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갈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당안에 배겨있던 종파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당과 혁명대오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백배로 강화되였다고 지적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자들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지난해에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데 대해 언급하시면서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고 자립경제의 토대가 더 튼튼히 다져졌으며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은 《마식령속도》를 창조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은하과학자거리, 문수물놀이장과 마식령스키장을 비롯한 많은 대상들을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우고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에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체육과 교육을 비롯한 문화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된데 대하여 말씀하시고 지난해의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당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선과 정책,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영웅적투쟁을 과감히 벌린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라고 총화하시였다.

지난해의 투쟁은 우리 사상, 우리 힘, 우리 식이 제일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성스러운 위업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 2014년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라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희망찬 새해에 승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에 넘쳐 영웅적진군을 다그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으려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 이것이 올해에 당과 인민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이라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과학기술부문이 앞장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나가며 그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번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리고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여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하여야 하며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며 축산을 적극 발전시키고 온실남새와 버섯재배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올해에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원수님께서는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수준의 훌륭한 건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고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고산과수농장건설, 간석지건설, 황해남도물길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제기일에 완공하도록 하며 살림집건설과 합숙건설, 교육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고 문화봉사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며 군민협동작전으로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건설하고 도, 시, 군들을 해당 지방의 특색이 살아나게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함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갈데 대해 지적하시면서 그 관철을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교육을 비롯한 문화건설에서 나서는 과업,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 우리 혁명의 정치사상진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올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력사적문건에 생애의 마지막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이라고 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며 나라의 통일은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하는것은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롱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사대매국행위입니다.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조선반도와 주변에 핵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으며 이로 하여 사소한 우발적인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재난을 가져오게 될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내외호전세력들의 대결과 전쟁책동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있는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어부지리를 줄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낼 때가 되였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이상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무모한 동족대결과 <종북>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개선에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참다운 애국의 기치,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굳게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섬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야 할것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으며 강력한 자위적힘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　*

단결의 시위

(전호에서 계속)

우리는 동맹휴학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고 앙양된 청년학생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준비를 하였다.

오래전부터 만주침략의 준비를 서두르던 일제의 책동은 이 시기에 와서 더욱 로골화되였다.

1928년 5월에 일본관동군 사령관 무라오까는 중국관내에서의 정세변화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혼성 제40려단을 봉천(오늘의 심양)에 진출시키고 자기네 군사령부를 그곳에 옮길것을 획책하였다. 련이어 베이징으로부터 봉천으로 돌아오는 장작림을 봉천입구의 남만철도와 경봉철도가 교차되는 철교에서 렬차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살해하였다. 이것은 다 만주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예비작업이였다.

일제가 만주를 먹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을 투쟁무대로 삼고있는 우리의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주가 중국땅이기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였지만 만주가 강점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랐다.

세차례에 걸치는 산동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대륙에 촉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길회선이란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련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회령사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것은 명치시대부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었다.

다나까내각은 이른바 《동방회의》라는것을 한 다음 천황에게 낸 《상주서》에서 길회선철도부설을 비롯한 만몽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세계제패론을 고창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이 세계제패의 야욕과 망상으로 일관된 악명높은 이 《상주서》에서 제기된 일차적인 국책이 만몽을 침략하는것이며 이 침략을 보장하는 선결적인 공간이 다름아닌 길회선철도를 포함한 만몽5철도부설에 있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 《상주서》에서 다나까는 만약 길림—회령철도를 비롯한 만몽5철도가 완성된다면 전 만주와 조선을 련결하는 대우회선을 얻게 되고 북만주로 통하는 직통선을 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아무데나 다 보낼수 있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탄압할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일본의 영악한 두뇌들은 길회선이 완공되여 군대와 화물을 쯔루가—청진—회령—길림으로 수송하게 되면 로정도 줄일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시간도 훨씬 단축할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가 길회선철도건설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무려 26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리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부패무능한 청조말기의 관리들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땅에서 철도부설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는것을 중화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였으며 외자차입에 의한 철도부설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였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돈도선건설을 강행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1928년 11월 1일로 예정된 길돈선철도개통식을 성대히 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력투쟁이 필요하였다. 이런 투쟁은 적들에게는 조중인민이 만주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종으로 될것이며 광범한 대중에게는 일제의 만주침공을 반대하는 항쟁의 신호로 될것이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1928년 10월 상순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투쟁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공조직도 하였다.

시위에 들고나갈 프랑카드와 성토문,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여야 한다는 립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프랑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여있는 학생자치회와 류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비합법적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여다니였다.

그때 선전대에 있은 한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영애는 류길학우회 성원으로 있을 때 연예공연과 독서발표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공청원으로 성장한 길림녀자중학교 학생이였다. 온순하고 말수더구가 적어 보통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다.

하지만 한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천한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예공연때에는 남들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역을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독서회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페지나 되는 책을 자발적으로 등사하여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영애는 시위투쟁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허청칸에 등사기를 옮겨다놓고 몇명의 소년회원들과 함께 격문과 삐라를 수만매나 찍어냈다. 가두에서는 수백명의 청중들을 앞에 놓고 조선말과 중국말로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녀성웅변가로 유명해졌다.

(다음호에 계속)

번영의 길에서 우리 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기치

조국땅에서 변혁과 기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함께 창전거리와 은하과학자거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류경구강병원,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대규모축산기지 건설…

조국땅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기적과 변혁의 기초에는 민족번영의 기치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놓여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켜오시였으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립하시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가시는 혁명사상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고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민족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영원한 번영의 기치이다.

민족의 운명은 어떤 지도사상을 운명의 기치로 내세우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민족의 운명은 민족을 중시하는 사상리념, 민족의 운명개척의 길을 가장 정확히 밝혀줄수 있는 사상에 의거할 때 가장 빛나게 개척된다. 개별적집단이나 당파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사상을 민족공동의 운명개척을 위한 기치로 삼거나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상을 가지고서는 어떤 민족도 자기 운명을 옳바로 개척할수 없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세우는 민족중시의 사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는 바로 사람—인민대중이며 민족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에 대한 완벽한 리해를 주는 독창적인 민족관을 정립하고 민족의 지향과 요구, 민족의 리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애민의 사상과 리론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공화국 북반부의 인민들뿐아니라 자기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찬양을 받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민족번영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민족번영의 정확한 지침이다.

이것은 민족을 가장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제일로 내세울뿐만아니라 민족의 번영과 부강의 과학적인 로정과 그 실현의 원칙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그리고 개별적사람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정확히 명시한다. 여기에는 자주성을 짓밟힌 민족들이 민족해방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며 피로써 전취한 자주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그리고 식민지의 처지에 놓인 나라와 민족들이 반제혁명의 총대를 높이 들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민족해방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며 독립후에도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영원히 지키고 빛내여 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이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민족성을 옳게 살려나가며 사회주의와 민족을 하나로 결합시켜 민족이 끊임없이 륭성발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길을 밝혀준다. 뿐만아니라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다른 민족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온 세계의 자주화실현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방도도 명시되여있다.

이것은 **김일성—김정일**주의야말로 민족성원이라면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 직업과 경력, 재산의 유무를 물론하고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공동의 힘으로 자기 민족의 운명을 옳바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민족공동의 사상적재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조선민족은 끝없이 번영할것이며 가까운 앞날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존엄높고 강대한 민족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나가는 공화국의 엄연한 현실은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따라 나아가는데 민족의 영원한 무궁번영의 길이 있음을 힘있게 시위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리영철

상 식

유쾌한 마음으로 밥상에 마주앉으면

몹시 기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입맛이 더 좋아져 아무것이나 다 맛있게 먹는다.

기쁜 감정은 중추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적당히 흥분시켜 위장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므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에 좋은 영향을 준다.

반대로 슬픔에 잠겨있으면 아무리 맛좋은 음식이라 해도 수저를 들기 싫어한다. 이때에는 중추신경이 억제되고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흥분되여 소화액이 잘 분비되지 않으므로 음식물이 잘 소화되지 않는다.

늘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밥상에 마주앉는것, 이것이 건강비결의 하나라고 본다.

주인된 자각, 충천한 기세

— 평양시 보통강구역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양대환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조국땅우에 기어이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인민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부위원장: 우리 인민은 지난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속공업부문만 놓고보더라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도입공사를 완공하였고 성진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주체철생산을 공고히 하면서 우리 식의 끊임없는 기술적진보로 강종을 늘이고 강질을 개선하는 등 강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금속공업뿐아니라 전력, 석탄, 철도운수부문 등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였고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여러 대상이 새롭고 특색있게 완공되여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는 조건이 훌륭히 마련되였다.

기자: 조국의 군대와 인민들의 성실한 노력과 열정이 깃들어있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창조물들마다에는 하루빨리 우리 나라를 경제강국으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일떠세우려는 군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가 깃들어있다.

부위원장: 옳은 말이다. 놓고보면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자기들이 다 맡을 일념을 안고 인민군장병들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 앞장서고있다.

《마식령속도》가 창조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사실 이 공사는 남들 같으면 10년이 걸려도 해낼수 없는 대공사이다. 그러나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삽을 박은지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천연바위들과 험한 산발들을 깎아내고 수십만㎡의 면적에 총 연장길이가 10여만m나 되는 스키주로들을 닦아놓았으며 호텔과 봉사 및 숙소건물들, 삭도 등을 훌륭히 건설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이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건설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역시 그러하다.

인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고있는 결사관철의 정신과 기풍, 일본새를 본받아 인민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기자: 올해에 들어와서도 군대와 인민의 비등된 열의는 더욱 기세충천해지고있다. 년초부터 우리의 주인공들은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마식령스키장을 건설한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온 나라에 대혁신, 대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고있다.

부위원장: 무엇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새해 신년사를 받아안고 전체인민이 격동되여 더욱 분발해나섰으며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근로자들속에서 생산성과가 확대되고있다. 불리한 날씨조건이지만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과 세포등판개간건설자들도 일정계획에 따르는 대상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를 힘있게 앞당겨가고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비롯한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역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우리 구역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자기들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할 결의밑에 새해 첫날부터 드세차게 일판을 벌려나가고있다.

경제강국건설의 주인은 다름아닌 자기들이라는 자각을 안은 인민들의 충천한 기세는 기어이 조국땅우에 부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　*　*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 진행

그리움은 끝이 없다

흰눈이 내린다. 온 강산을 하얗게 감싸주며 내리는 흰눈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고있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폭포소식을 들으시면 또 오실가 하며 지난 온 한해를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온 조국의 인민들이다.

장군님을 그리며 날과 달을 보내온 그들의 마음은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을 맞으며 더욱 강렬해졌다.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민족의 강성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끓어번지는 속에 지난해 12월 17일 평양체육관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 중앙추모대회가 엄숙히 거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예지와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민족번영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펼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년초석을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르며 수령영생을 위한 충정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친 지난 2년간은 군대와 인민이 장군님과 혈연의 뉴대를 더욱 억세게 이어온 나날이였다는데 대해 강조하면서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하며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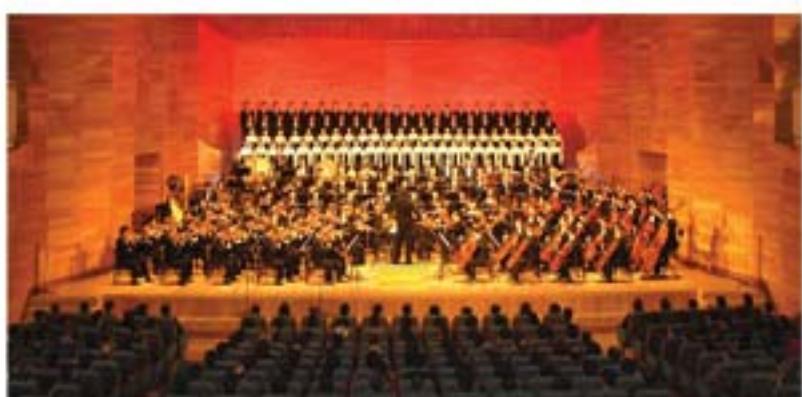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맹세모임이 있었다.

끓는 전구마다에서 시대를 진감시키는 새 기적,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자신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를 진정하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신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울음홀,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그리움의 대하가 굽이치는 속에 평양과 지방에서는 추모대회와 추모회, 미술전시회, 회고음악회, 회고무대, 맹세모임, 결의모임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였으며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과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추모행사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 해외동포조직들에서도 엄숙히 진행되였다.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국장 김영희는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으나 장군님을 끝없이 그리워하며 높이 모시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니 장군님의 력사가 그대로 흐르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다. 진정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위인의 한평생이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여주시였고 무한한 사랑으로 인민들의 요람을 지켜주시였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도 머리를 보란듯이 들고 떳떳하게 살아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겠다.》

글 본사기자 한신애
사진 조선중앙통신

회고음악회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진행

성천강출하사업소

종합조종실

동해지구의 함흥시 해안구역에 성천강출하사업소가 있다.

사업소는 수산물을 2, 3차로 가공하는 수산물가공기지이다.

사업소에는 가공어선을 비롯한 여러척의 어선들과 수천t능력의 랭동저장고, 여러개의 가공장 등이 있다.

가공장들에서는 잡아들인 수산물들을 랭동저장하고 2, 3차로 가공하는것과 함께 제품에 대한 포장을 진행한다.

생신한 수산물들을 봉사망들에 보내줄수 있게 꾸려진 실내축양장에서는 살아움직이는 털게, 가재미, 광어, 조개 등을 볼수 있다.

사업소에서 생산하고있는 랭동물고기와 살아있는 수산물들,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진공포장된 대구살식혜, 도루메기식혜 등 수십가지의 수산물가공품들은 다시 가공하지 않고 아무때나 먹을수 있는것으로 하여 가정주부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실내축양장에서

2차 가공장에서

이밖에도 사업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나노기술연구소와 힘을 합쳐 게껍질로 키토산가루, 키토산액 등을 생산하고있으며 여러 용도의 나노제품도 개발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여러가지 수산물가공품이 생산된다.

참관기

력사의 증견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4)

조국해방전쟁의 한 페지를 장식하고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으로 알려진 대전해방작전(주체39(1950)년 7월 7일부터 7월 20일사이에 진행된 작전)의 전행정을 조형예술적으로 실감있게 형상한 대전해방작전전경화관을 돌아본 우리는 참관자들과 함께 《선군혁명승리관》이라고 씌여진 방앞에 이르렀다.

강사는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번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새롭게 꾸리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는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고 군대와 인민이 영원히 승리해갈 군사적 담보를 마련하여주신 사적자료들과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자료를 비롯한 여러 전시물이 있다는데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에 들어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안겨오는것은 야전솜옷을 입으시고 환하게 웃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환하신 영상이였다.

그이의 영상을 우러르는 참관자들의 가슴가슴은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쉬임없는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부흥할 내 조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패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49(1960)년 8월 25일에 진행하신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지도사진자료를 보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여온 선군혁명령도계승의 력사가 어떻게 시작되였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새기게 되였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립장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준 주체57(1968)년 1월 23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주체58(1969)년 4월 15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야말 군대와 인민의 의지를 과시한 주체65(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 등을 비롯하여 전후 미제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떨쳐온 지나온 년대들에 대한 강사의 구체적인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과 함께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다.

우리는 1990년대에 이어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을 짓뭉개버리고 승리를 이룩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1990년대 조미기본합의서채택과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을 받아내게 된 경위와 주체83(1994)년 12월 강원도 금강군 이포리지역에서의 적직승기사건, 주체88(1999)년 6월 서해해상전투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난 강사는 한 사진자료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미제는 매일과 같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도발책동과 군사적위협책동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감행하였습니다.

주체92(2003)년 2월 어느날, 미제침략군 최신형정찰기가 우리 나라 조선동해 경제수역상공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 정찰기는 〈보잉—707〉을 개작하여 만든 최첨단전자설비들로 장비된 대형간첩비행기입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중정탐활동을 목적으로 당시 미제가 일본의 오끼나와섬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에 새로 투입한 비행기였습니다.

우리의 인민군추격기편대는 순식간에 작전지역상공에 돌입하여 적비행기의 꼬리를 바싹 물고 충돌직전의 근접추격(15m까지 접근)으로 22분동안이나 압도적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이날 적들이 얼마나 혼쌀이 났던지 정찰기에 타고있던 비행사이하 20여명전원이 〈탈퇴성명〉을 내고 본토로 돌려보내달라고 들고 일어났으며 적들은 공화국령공에 대한 〈RC—135〉정찰기의 비행도 당분간 중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자료들이 그때 정찰기사건과 관련된것과 세계 여러 나라의 반향자료들입니다.》

미제의 허장성세를 만천하에 폭로한 통쾌한 공중전에 대한 해설에 이어 주체99(2010)년 11월에 인민군포병들이 남조선괴뢰도당의 우리 수역에 대한 포격도발에 대처하여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물리적대응타격을 가한 강사의 이야기와 전시물들은 참관자들로 하여금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다져오신 선군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의 일부

의 위력, 무적의 군력이 있음으로 하여 세기를 이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사회주의 위업이 굳건히 고수되고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어 오르게 하였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과 열병식사진들이 전시되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오늘 조국은 또 한분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총대위업, 선군혁명위업은 변함없이 계승발전되고있다.

얼굴마다에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과 정을 같이하는 영원한 선군혁명전우가 되여 반미대결전에서 기어이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부강번영할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려는 굳은 맹세가 어려있는 참관자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을 마친 우리는 교양마당에서 긍지롭게 솟아있는 중심주제 《승리》상을 다시금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글 본사기자 강 국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자들에게는 징벌만이 차례진다.

상 식

기 린 굴

기린은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숭상하는 환상적인 동물이다.

대가리는 룡과 비슷하고 이마에 하나의 뿔이 돋아있으며 몸체는 노루를 닮았고 황소와 비슷한 꼬리를 가진 말모양의 짐승이다. 수컷은 기, 암컷을 린이라고 하여 기린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성인이 날 때 하늘에서 기린마를 내려보내여 성인을 태우고 다니게 하였다고 한다.

단군이나 동명왕이 기린마를 타고 무술을 닦고 나라를 다스렸다는것은 력사책들인 《고려사》와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여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기린굴은 구제궁안 부벽루아래에 있다. 동명왕이 기린마를 이곳에서 길렀는데 후세사람들이 돌을 세워 표식하였다.》라는 문구와 기린굴과 관련한 옛 시인들의 시구절들이 게재되여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고려시기에 이미 평양의 모란봉일대에 기린굴이 존재하였다는것과 고려사람들이 그 사실을 력사기록을 통하여 남기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기린굴은 청류벽을 따라가면 옛 영명사터앞 전금문쪽에서 160보 앞선 거리에 있는 《청류벽회화나무》의 지척에 있다.

동명왕전설의 하나인 기린굴전설이 생기고 평양 금수산(모란봉)에 있는 동명왕관련사적들이 대를 이어 지켜지고 전해지게 된것은 고려사람들이 자기들을 성인인 동명왕의 후손으로 간주하였기때문이다.

기린굴은 반만년 유구한 력사발전에서 선도적역할을 한 고구려의 막강한 지위와 후세에 준 문화적영향을 아는데서 참고로 되는 귀중한 력사문화유적이다.

우리 농장의 변모를 생각할 때마다

올해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50돐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인지 한평생 농민들을 위하여 험한 농촌길을 걸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더욱더 그리워진다.

지난 50년간은 우리 농장이 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온 자랑찬 나날이였다. 오늘 농민들이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농촌테제가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도 많이 깃들어있는 우리 농장의 발전력사가 그것을 말없이 증명해주고있다.

농촌테제가 발표된 다음해인 주체54(1965)년 11월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아침 우리 농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테제에 밝혀진대로 우리 장수원에 협동농장관리위원회의 규모와 기구체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 농장의 명칭까지 장수원협동농장관리위원회로 지어주시며 온 하루를 보내시였다.

돌이켜보면 수령님께서 우리 농장을 위해 기울이신 로고는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할수 없다.

해방후 첫해 이른봄에는 농민들을 위하여 물길공사를 하도록 하시고 앞으로는 논농사를 많이 하여 농민들이 흰쌀밥을 먹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또 언제인가는 우리 농장의 한 농가에서 기르는 닭을 보시고 앞으로 인민들에게 닭알을 많이 먹이기 위한 방도도 마련해주시며 농장에서 닭을 많이 길러 닭기르기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주시였다.

정녕 우리 농장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수령님께서 돌려주신 가슴뜨거운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음료수문제를 해결해주시기 위하여 현지에서 물주머니자리까지 몸소 잡아주시고 수많은 건설자재와 기술자들을 보내주신 이야기, 장수원협동농장이 농촌기계화에서 전국의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농장에 수많은 농기계들을 보내주신 이야기…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보살피심속에서 농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100정보당 뜨락또르 4대, 자동차는 1대로써 농촌기계화에서 전국의 본보기로, 온 나라가 다 아는 장수원협동농장으로 되였다.

그러던 우리 농장의 농업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을 뜻밖에 잃은것은 말그대로 청천벽력이였고 크나큰 정신적타격이였다. 거기에다 제국주의자들의 악착한 제재와 봉쇄책동,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 등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우리 농촌에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농업생산이 커다란 지장을 받았고 인민들은 식량난을 겪게 되였다. 농사의 주인인 우리들도 맥을 놓고 주저앉았던 그 시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앞길을 밝혀주신 분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였다.

장군님께서는 농사는 오직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만 하여야 하며 농촌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농촌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농사와 관련한 문제들도 모두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오늘 조국의 농촌은 사회주의농촌답게 자기의 면모를 일신하였다. 선군시대선경으로 변모된 마을들과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정리된 토지들은 대원수님들의 농촌을 중시하는 정책의 정당성과 농촌테제의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 모든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농업부문의 일군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나는 뜻깊은 농장에서 살며 일한다는 긍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쌀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드는 길에서 사회주의농업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겠다.

평양시 삼석구역 장수원협동농장
관리위원장 고성봉

처녀유술영웅의 보금자리

얼마전 어느 일요일 저녁이였다.

우리는 보통강기슭에 새로 일떠선 체육인살림집을 찾았다.

승강기를 타고 7층에서 내린 우리는 3호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손님을 반기는 녀인의 목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출입문이 방싯 열리더니 앞치마를 두른 녀인이 눈앞에 나서는것이였다. 땀에 절은 유술복차림의 안금애가 아니라 가정생활속에서 행복넘친 그를 보니 전혀 딴 사람을 만난것만 같았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반갑습니다. 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안금애와 그의 아버지 안종련, 어머니 문정식이 우리의 손을 잡아끌었다.

어느새 앞탁에 시원한 샘물이며 과일들까지 놓아주는 그들이였다.

우리가 들어선 곳은 공동살림방이였다. 그 방은 안금애에 대해 한눈에 알게 해주었다.

방의 제일 밝은 벽면에는 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이 모셔져있었다. 그리고 그옆에 로력영웅증서가 있었다. 방의 다른 벽면에는 공화국기발이 오르는 속에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안금애의 대형전광사진도 있었다. 승리의 감격에 넘쳐있는 사진속의 그 모습을 바라볼수록 처녀유술선수를 로력영웅으로 키워준 조국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었다.

그러는 우리를 바라보며 어머니 문정식녀성이 웃으며 말하였다.

《우리 막내(안금애)딸이 11살때였습니다. 유술을 하는 제 언니를 따라 훈련장이며 경기장에 몇번 갔다오더니 어느날 <나 이젠 손풍금 안배우겠어요. 언니처럼 유술선수가 될래요.>라고 말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적에도 곱살하게 생겨서 숱한 음악선생들까지 탐을 낸 애였는데… 글쎄 맏딸이 유술을 하는데 막내까지는 시킬 마음이 정말 없었습니다. …》

그때 일을 회상하는 로인의 얼굴에는 어줍은 미소가 흘렀다.

금애는 자기의 희망대로 돈 한푼 안내고 유술을 배웠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필요한 모든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남달리 탐구심이 높고 이악하며 진취적인 훈련기풍은 그가 근 20차의 국제경기들에서 높은 성과를 안아올수 있게 하였다.

안금애는 지난해 10월 조선체육대학에 입학하였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자기 방으로 이끌었다.

방은 아담하면서도 정결했다.

2인용침대와 옷장, 책상, 책장들이 갖추어져있었다. 책장

에는 체육기술도서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선수시절의 그 정신과 열정을 안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밤을 패며 공부하는 그의 모습이 보이는듯 싶었다.

우리의 심정을 알아본듯 그는 말하였다.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현대체육기술들을 모두 나의것으로 만들겠다는 오직 한가지 생각뿐입니다. 저를 키워준 조국의 은덕에 보답하는 길은 그 길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를 따라 부모방을 비롯한 여러방을 돌아보았다. 생활상편의가 훌륭하게 보장된 이런 현대적인 살림집을 안금애뿐이 아닌 평범한 체육인들이 돈 한푼들이지 않고 한날한시에 받아안았다는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입사증을 받아들고 새집에 처음으로 들어설 때 안금애와 그의 식구들은 모두가 집문턱을 선뜻 넘어서지 못하였다고 한다. 방마다에 가득 넘쳐흐르는 친어버이의 따뜻한 정이 그들모두를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에 울게 하였던것이다.

이어 우리는 식사실이 달린 부엌에 들어섰다.

식사실의 식탁과 의자도 훌륭하였지만 부엌에 갖추어진 물가열기와 가스곤로, 배풍기, 가시대, 찬장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손색이 없었다.

《우리 금애가 체육을 하면 얼마나 잘하였겠습니까. 그저 체육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을뿐인데 나라에서는 이렇게 큰 은정을 베풀어주고있으니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만복을 누려가는 조선의 체육인들처럼 행복한 체육인들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안종련로인의 말이였다.

감동속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식사실 장식장에 놓여있는 《꾀꼴새》표 성냥곽이 눈에 뜨이였다. 아마 지난해 새집들이하는 날 그 누군가가 들고왔던 성냥일것이였다.

우리는 유술영웅의 새집에 언제나 따뜻한 온기가 차넘치고 만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진정이 담긴 성냥 한 가치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곽의 옆면에 긴 선을 그어보았다. 순간 그 가치에 불이 달리였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렇게 속삭이였다.

—꺼질줄 모르라 행복의 불이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행복의 보금자리에 나붓기는 저 공화국기발에 령롱한 빛을 더해주며 영원토록 타오르라!

우리는 처녀유술영웅 안금애의 행복한 래일을 축복하며 조용히 집을 나섰다.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박수원

어머니를 도와

기쁨과 웃음이 샘솟는 곳

오랜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평양의 대동강 한가운데 생겨난 릉라도는 사계절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유명짜하다.

얼마전 우리는 평양의 명소로 손꼽히는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았다.

두툼한 옷을 떨쳐입은 유희기구들은 따뜻한 봄을 기다리며 서있었지만 유희장의 1, 2구역에 자리잡고있는 전자오락관들과 립체률동영화관은 손님들을 반겨맞아주었다.

우리는 손목잡고 씽씽 걸어가는 나어린 쌍둥이형제를 따라 유희장 1구역의 전자오락관으로 들어섰다.

수십대의 전자오락설비들에서는 아름다운 불

빛이 번쩍거리고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으며 여기저기에서 오락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떠나갈듯 하였다.

《우리 쌍둥이손자애들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전자오락관에 가자고 야단입니다. 멀리 출장갔다온 제 아버지에게 오늘은 자기들의 오락솜씨를 보여준다면서 저렇게 사기가 나서 앞서 간답니다.》

대동강구역 옥류2동에서 살고 있는 황봉희녀인의 말이였다.

쌍둥이꼬마들은 벌써 조종간을 잡고 뽀트경기를 시작하였다. 그들의 뒤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와 할머니, 이모들까지 응원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마치 온 가족이 푸른 강물우에서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뽀트를 타고 가는듯 희열에 넘쳐 있는 행복한 한가정의 모습이였다.

우리는 웃음속에 오락관을 돌아보았다.

능숙한 사격술을 시위하려는듯 사냥경기에 나선 남학생들, 승용차경기에 나선 로인, 오토바이경주에 나선 처녀, 총각… 판스키경기를 하는 녀인들의 모습도 보이였다.

경마오락을 즐기다가 방금 말에서 내린 은정구역의 김은희녀성은 《말에 오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꼭 진짜 말을 탄것만 같습니다. 1회전에서는 6등을 했는데 3회전에서는 1등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웃음을 거둘줄 몰랐다.

우리는 기재들이 다채롭고 밤늦게까

전자오락관에서

지 운영하기때문에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흥성거리고있다는 관리일군 김금희녀성의 이야기에 가슴을 적시며 이번에는 립체률동영화관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환한 홀에 들어서니 관람실들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은 저마다 1분이 1시간맞잡이로 길어보인다, 이렇게 흥미있고 재미있는 립체률동영화는 아무리 보아도 싫지 않다고 한마디씩 하는것이였다. 보아하니 재탕을 하는 손님들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서있는 댓살가량 나보이는 처녀애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대동강구역 동문유치원에 다니고있는 천지은어린이는 지난해 립체률동영화관이 생겨 문을 열 때 왔던 첫 손님들중의 한 사람이였다.

현실세계와 같은 즐거움과 긴장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립체률동영화에 한번 맛을 들이면 여기로 오고싶어 못 견딘다는 손님들의 말이 과연 옳을가 하는 생각속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률동관람의자에 앉았다.

전자오락관을 찾은 대동강구역 옥류2동 황봉희가정

잠시후 우리는 모두 추격기비행사가 되여 적들의 진지를 불바다로 만들고 하늘의 우세를 자랑하는 적기들을 멋있게 쏴떨구었는가 하면 경기용차를 타고 용감하게 달려 우승자의 쾌감도 느껴보았으며 신비한 바다의 세계속에도 들어가보았다. 관람자들은 모두 너무도 벅차고 감명깊은 환상앞에 자신들을 다 잊고 마음껏 소리도 치고 즐겁게 웃었다.

영화가 끝나자 관람실에는 환하게 불이 켜졌지만 사람들은 의자에서 쉬이 일어날줄 몰라하였다.

《자리에서 일어섰는데도 아직 비행기를 타고있는것만 같아요.》

《실컷 웃고나니 한 10년은 젊어진것만 같구려.》

사람들사이에 오가는 말에도 기쁨가득, 웃음가득 실려있었다.

릉라도는 나날이 샘솟는 인민의 행복을 그대로 펼쳐보이고있는것 같았다.

립체률동영화관에서

글 본사기자 려 해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노래 《조국찬가》를 되새기며

— 문화성 부국장 윤용철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지금 조국인민들속에서 노래 《조국찬가》가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이 노래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싶다.

윤용철: 노래는 지난해 9월 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창작되였다. 그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인민들속에 전파되여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노래는 선률구성이 간결하고 같은 리듬형태의 반복으로 하여 누구나 한번 들으면 인차 따라 부를수 있는 매우 통속적인 작품이다.

가사역시 《사랑하는 어머니》와 《정든 고향집뜨락》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생활속에서 느낄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세부들을 통하여 조국이라는 거창한 존재를 그려냄으로써 인민들에게 깊은 여운을 안겨주고있다.

기자: 흔히 명곡은 들을수록 인상깊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풍부히 하여준다. 노래의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부러움없어라 아침의 나라》와 같은 표현들은 사람들모두가 조국에 대한 숭엄하고 격동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한다.

윤용철: 옳은 말이다.

돌이켜보면 조국은 지난 시기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아래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힘있게 과시하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리념밑에 조국해방, 민족해방을 이룩하시였으며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우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고립압살과 전쟁책동을 물리치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놓으시였다. 그 나날에 우리 인민은 땅의 주인, 공장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자기의 존엄을 빛내이게 되였고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펼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걸으면서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국력을 만방에 과시하여왔다.

기자: 그것이 바로 노래로 되여 《슬기롭고 아름다운 조선의 모습》을 펼쳐놓았다.

윤용철: 그렇다.

4절 가사에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오늘 조국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경제강국, 문명국에로 빠른 속도로 치솟고있다.

지난 두해사이에만도 나라의 곳곳에 평양의 창전거리며 은하과학자거리,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옥류아동병원과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현대적으로 훌륭히 일떠섰다. 마식령스키장만 놓고보아도 여기에는 인민들이 문명을 마음껏 누릴수 있도록 여러가지 스키주로들과 호텔, 숙소, 직승기착륙장, 삭도 등 수십여개의 대상들이 종합적으로 완벽하게 꾸려져있다. 문

수물놀이장 역시 인민들이 말하는 그대로 아름다운 물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기자: 인민들이 사는 곳마다에서 행복의 웃음소리가 울려나오고 각지의 공장, 기업소들마다에서 경제강국건설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는 오늘의 현실이 바로 노래 《조국찬가》에 그대로 집약되여있다.

예술은 생활의 반영이다. 하기에 조국인민들은 이 노래를 조국의 력사를 음악으로 대표하는 작품으로 간주하는듯 싶다.

윤용철: 조국은 곧 인민이라는 사상과 함께 인민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진정한 조국이라는 종자로 형상의 꽃을 피운 이 노래는 오늘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깨우쳐주는 시대의 명곡으로, 제2의 애국가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들은 앞으로도 이 노래를 높이 부르며 조국의 더 좋은 래일을 마중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다.

* * *

참매

참매는 조선의 국조이다.

일반적으로 국조는 해당 나라에서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진 새 또는 특산종의 새 등을 정하고있다. 그러므로 국조에는 해당 나라의 풍토와 문화, 사람들의 생활관습과 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 많다.

우리 나라에서 참매는 력사적으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웃나라들에까지 널리 알려진 새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반영된 고구려건국설화에는 동명왕의 아버지 해모수가 매로 변하여 꿩으로 변한 강물의 신 하백을 굴복시켰다는 내용이 기록되여있다.

예로부터 참매는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인연을 맺고있다.

도서 《고구려고분연구》(2010년)에 《매를 리용한 사냥모습은 감신무덤, 세칸무덤, 안악1호무덤, 장천1호무덤, 마선구1호무덤 등에 그려져있으며…》라고 서술되여있는것처럼 옛날부터

좋은 평을 받고있는 대동강맥주

지난해 9월 미국의 VOA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대동강맥주가 … 그 어느 맥주보다 맛이 좋다고 호평받고있다. …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한 맥주애호가는 동북아시아에서 대량 류통되는 맥주들중 대동강맥주가 최고이라고,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맛보았지만 대동강맥주는 계속 사먹고싶을 정도였다고 말하였다.》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대동강맥주공장

한편 영국의 잡지 《에코노미스트》와 로이터통신 역시 《대동강맥주가 대단히 맛이 좋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맥주가 남조선에서 생산한 맥주보다 훨씬 우수한것으로 사람마다 평가하고있다.》고 전하였다.

대동강맥주,

이것은 평양의 대동강맥주공장에서 생산되고있다.

공장에서는 사람들의 각이한 기호에 맞게 주원료의 조성과 엑스(맥주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와 알콜의 함량을 조절하여 여러가지 맛을 가진 맥주를 생산하고있다. 례를 들면 보리

사람들은 참매를 길들여 꿩, 메토끼와 같은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널리 리용하여왔다. 세나라때에는 이미 민가들에서 매를 기르고있었고 고려때에는 매를 기르는 국가적인 관청까지 있었다.

참매는 일명 보라매, 푸른매, 또는 꿩매라고도 하였으며 주변나라들에서는 해동청으로 알려져 있었다. 해동청이란 말은 조선의 푸른매라는 뜻인데 그 기능이 하도 높아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이웃나라들에서까지 수요가 매우 컸다고 한다.

참매는 황새—왜가리목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이다. 독수리과에는 23가지 종류가 있는데 참매는 그중의 한 종류이다.

참매의 몸길이는 보통 48～61㎝이고 몸무게는 500g～1㎏이다. 날개길이는 28～40㎝이고 날개를 편 길이는 105～130㎝이다. 부리는 작고 다리는 가늘고 긴편이다.

몸색은 여러가지이다. 보통 수컷의 정수리와 뒤통수부위는 검은색이고 뒤목은 밤색을 띤 검은색이며 날개깃은 검은밤색이다. 가슴, 배, 다리깃은 흰색인데 검은밤색의 가는 가로무늬가 있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다.

참매는 산림에 살면서 주로 쥐류와 꿩, 비둘기, 메토끼 등을 잡아먹는다. 참매는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번개같이 내리꽂힌다. 보통 무리를 짓지 않고 한마리씩 생활하며 번식기간에만 짝을 이룬다.

참매는 보통 4월말～5월초에 번식한다. 키나무우의 높은 가지우에 작은 나무가지로 접시모양의 둥지를 틀고 한해에 연청색, 푸른색의 알을 2～4알정도 낳는다

참매는 우리 나라의 북부산지에서 번식을 하며 중부, 남부에서 겨울을 난다.

참매는 몸통은 그리 크지 않지만 균형잡힌 외모와 밝은 눈, 날카로운 부리와 억센 발톱, 매우 빠른 속도와 령리하고 결패있는 기질을 가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100%, 엑스 11%, 알콜 5%정도인 맥주는 길금향이 짙고 호프의 쓴맛이 적당한것으로 하여 진한 맛을 내고있으며 보리 80%, 흰쌀 20%, 엑스 10%, 알콜 4. 5%정도인 맥주는 상쾌하면서도 뚜렷한 쵸콜레트향과 부드러운 쓴맛을 살려 연한 흑맥주로서의 고유한 풍격을 나타내고있다. 평양에 있는 경흥관의 대동강맥주집에서는 이러한 맥주들이 대동강맥주 1, 2호,… 7호 등으로 불리우고있다.

평양시 모란봉구역 인흥2동 28인민반의 맥주애호가 리성락은 이렇게 말하였다.

《질좋은 맥주는 겉으로 볼 때 맑고 투명하며 잡질이 우에 떠있거나 아래에 가라앉지 않는다. 색은 흑맥주가 아닌 이상 연한 누런색을 띠여야 하며 거품이 잘 일어야 한다. 이것을 놓고볼 때 대동강맥주의 성적은 최우등이라고 할수 있다.》

부글부글 흰 거품이 부풀어 오르는 시원하고 쩡한 대동강맥주, 이 맥주의 력사는 불과 10년남짓하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홍정혁

만수교청량음료점에서

고향소식

비로도생산으로 이름난 고장

질좋은 비로도천이 생산된다. (박천견직공장에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태를 묻고 자란 고향을 꿈속에서도 그릴 동포들을 위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이번에 평안북도 박천군으로 이어졌다.

박천군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고있는 홍연철동포의 고향이다.

조국에서 녕변이 비단으로 소문났다면 박천은 비로도로 이름났다. 그만큼 박천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고장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마중나온 군의 한 일군으로부터 박천군의 유래와 력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박천이라는 지명은 대령강과 청천강사이의 넓은 지대에 자리잡은 지역이라는 뜻에서 불여진 이름입니다. 고구려시기 고덕창 또는 덕창진으로 불리우던 박천이 고려시기에는 박릉, 박주로,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이르러 평안도 박천군으로 개칭되였습니다. 군에는 우리 나라에서 비교적 오랜 절간인 심원사(9세기)와 고려시기의 성터유적인 박릉성을 비롯한 력사유적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명주실의 산지로서 일찌기 견직수공업이 발전하였던 박천은 18세기 우리 나라 상업중심지의 하나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

그러면서 그는 뭐니뭐니해도 군의 큰 자랑은 박천견직공장이라며 우리를 공장으로 이끌었다.

공장정문에 들어서니 깨끗하게 포장된 구내에 보기좋게 들어앉은 생산건물들이 눈에 안겨왔다.

우리의 발걸음은 박천의 명산품인 비로도를 생산하는 비로도직장으로 향했다.

현장에 들어서니 유연창대직기와 날염기를 비롯하여 줄지어 늘어선 현대적인 비로도생산흐름선의 작업모습이 볼만하였다.

폭출건조기에서 필필이 흘러내리는 천들은 색갈이 곱고 문양도 다양하였다. 서있는 몇분사이에만도 수십m나 생산되여 나왔다.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끄는것은 종업원들의 능숙한 일솜씨였다. 자신감에 넘쳐 현대적인 설비들을 척척 다루어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덥고 자랑스러웠다.

《몇달전에 비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라며 우리와 만난 김영남직장장은 매주 기술학습의

박천식료공장에서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있어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 기대에 정통하고 실천속에서 그것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담요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도 돌아보았다.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하루하루를 로력적 성과로 수놓아가는 종업원들의 열정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여러가지 아름다운 문양의 비로도며 담요 등을 받아안고 기뻐할 인민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공장정문을 나선 우리는 박천읍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지방의 특성에 맞게 산뜻하게 건설된 살림집들이며 일매진 도로들, 조선식합각지붕을 얹은 국수집과 사람들의 기쁨 넘치는 편의봉사시설들…

도로주변에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심어졌으며 여러가지 동물조각상들이 거리와 건물의 구색에 맞게 조화롭게 배치되여있었다.

우리는 박천식료공장도 찾았다.

공장에서는 최근년간 건물을 개건하고 낡은 공정을 완전히 들어내고 모든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리였다.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는 장작업반에 들어선 우리는 여러 생산공정과 콤퓨터조종실도 돌아보았다. 출하장에서는 장맛이 전에 없이 좋아졌다고 한결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공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절임생산공정을 흐름식으로 꾸려놓고 무우, 오이장절임을 비롯한 맛좋은 장절임류들을 생산하여 군내주민들의 식생활에 보탬을 주고있었다.

우리는 박천봉화피복공장과 목재가공공장, 식료화학공장, 종이공장 등을 거쳐 미래의 주인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은덕고급중학교와 읍유치원도 차례로 돌아보았다.

보는것, 듣는것 그 모든것마다에 조국애를 지니고 고향을 자체의 힘으로 꾸리고 생산을 늘이기 위해 애쓰는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비껴있었다.

군의 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아마 홍연철동포만이 아닌 여기 박천땅에 태를 묻은 동포들이 와보면 놀랄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고향땅을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는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더 아름답게 가꾸어갈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변모될 박천의 래일을 그려보며 이곳을 떠났다.

박천군 읍유치원에서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조선속담 (시간, 때)

—바쁜 살림에 늙는줄 모른다

일에 열중하던 나머지 세월이 가는줄도 모른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보리밥 한솥 짓기

보리밥 한솥을 지을 정도의 시간이라는 뜻으로 얼마간의 시간적차이를 이르는 말.

—일각이 삼추같다

짧은 시간이 삼년같이 생각된다는 뜻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매우 간절함을 이르는 말.

참고: 일각이 여삼추 (일각—매우 짧은 시간을 이르는 말.)

—단풍도 떨어질 때에 떨어진다

모든것이 다 알맞는 때가 있다는 것을 비겨이르는 말.

—비오는 날 낚시질하기

때를 잘 선택하지 못하고 일을 벌려놓은 경우에 핀잔조로 이르는 말.

—원앙이 록수를 만나다

적합한 환경이나 시기를 만나는 것을 이르는 말.

3822. Braveheart Lane Frederick, Maryland 21704.
U.S.A. 양은자사촌동생 앞

보고싶은 동생에게

동생, 그동안 잘 있었소. 가족들도 잘 있겠지.

나는 작은아버지 양철영의 둘째아들 양효식이요.

편지와 사진으로만 본 동생을 꼭 한번 만나보고싶어 이렇게 펜을 들었소.

내가 조국해방전쟁시기 어머니의 등에 업혀 아버지와 헤여진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여년세월이 흘렀구만.

그때 세살밖에 안되던 나도 이제는 예순이 훨씬 넘었소.

한강토, 한지맥에서 살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헤여져 조카가 큰아버지의 얼굴도 못보고 사촌들끼리 만나지도 못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오.

어머니는 말끝마다 언제면 아버지랑, 시형님이랑 만나서 함께 살수 있겠는가고, 통일이 언제 되는가고 이야기하군 하오.

나는 2001년 금강산에서 50년만에 꿈결에도 그리던 아버지를 만나서야 동생소식도 알게 되였소. 그때 나의 두손을 꼭 잡고 이제 헤여지면 언제 다시 만나겠느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누만.

미국의 남조선강점으로 60여년세월 겪고있는 이런 고통은 우리 가족만이 아닌 민족성원들모두가 겪는것이 아니겠소.

하지만 나는 우리가 모여살 그날, 통일의 날은 꼭 온다고 믿고있소. 내 생각만 하다나니 안됐소. 우리 집사람들은 다 건강하여 잘 지내고있소.

효덕형님과 나는 이제는 년로보장으로 집에 들어와있고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였소.

맏형네 형진이는 평양농업대학(당시)을 졸업하고 호남협동농장관리위원회 부원으로 일하고 우리 아들 형원이는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을 졸업하고 예술단배우가 되여 자기의 기량을 높여가고있소. 손자, 손녀들도 다 소학교와 초, 고급중학교들을 다니며 공부를 열심히 하고있소. 무료로 공부시켜주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이 고마운 조국, 귀중한 제도를 대를 이어 지키기 위해 자식들모두가 군사복무를 하였거나 하고있네. 맏형네 주광이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입대하였소.

그 녀석이 중학교시절에 조직생활과 공부를 잘하여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받았는데 나라가 있고야 자기도 있다며 학교를 졸업하자 제일 먼저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네. 나같은 농사군의 자식들이 돈 한푼내지 않고 대학공부까지 하는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힘들것이라고 난 생각하오.

우리는 이렇게 다들 당(조선로동당)과 국가의 혜택속에 행복하게 살고있소.

이제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니 어쩐지 자꾸 동생이 점점 더 그립고 또 매부랑, 조카들의 모습이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생각뿐이네.

동생, 나는 동생이 몸은 비록 만리타향에 있어도 조국을 알고 조선민족의 근본을 잊지 않고 부강조국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일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리라고 믿고싶소.

언제든지 상봉하여 뜨겁게 회포를 나눌 그날이 오겠지. 우리 서로 멀리 떨어져있어도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껏 노력해나가자구.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쓰겠소. 조국에 한번 꼭 오라구.

못다한 이야기는 그때 마저 하기요. 조국에서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소.

편지와 함께 우리 가족사진을 보내오.

동생도 그래 모두들 건강하여 잘 있기 바라오.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18인민반 양효식

바쳐가는 마음

리미란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기 위하여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녀성교육자들은 조국땅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다.

20대 처녀시절부터 교단에 서서 자기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고있는 동대원구역 대신초급중학교 교장 리미란도 그중의 한 사람이다.

그를 만나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의 주의를 끈것은 그가 밑거름이라는 말을 자주하는것이였다.

교육자로서 밑거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것은 십분 리해되였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각처럼 단순한것이 아니였다.

원래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수학공부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크면 수학분야에서 이름난 과학자가 되려는 희망을 안고있었다.

이러한 그가 교육자라는 방향전환을 하게 된것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결정(주체64(197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5차회의에서 결정)이 발표되였을 때부터였다.

그때 그는 중국의 연길에서 가족과 함께 조국의 품에 안긴지 얼마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누구나 무료교육제도의 혜택아래 마음껏 배우면서 자기 희망을 꽃피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페부로 절감하였다. 거기에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결정은 그에게 조국의 미래를 키워가는 교육이라는 거목의 밑거름이 되려는 결심을 굳히게 하였다. 하여 그는 평양제2사범대학(당시)을 졸업하고 평양삼마고등중학교(당시)에서 교육자로서의 걸음을 내짚었다.

학생들과 첫 인연을 맺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기의 모든것을 애오라지 학생들에게 바치였다.

후대교육사업에 바쳐진 그의 정열과 노력에 대하여 한 제자는 말하였다.

《오늘도 저만이 아니라 그때의 우리 학급동무들에게는 처녀시절 선생님의 모습이 친누이나 친어머니모습처럼 간직되여있습니다. 정말 인정도 많고 정열도 많은 선생님입니다.

제가 중학교시절에 신병으로 몇달동안 앓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매일과 같이 찾아와 저의 병상태도 알아보고 병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군 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이 호전되였을 때에는 그사이 밀린 저의 학습을 지도하느라고 늘 새벽길, 밤길을 걷군 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군 하였습니다. 그때면 선생님은 교육자로서 응당한 본분을 할뿐이라고 웃으며 조용히 말하군 하였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사업에 바쳐가는 열정과 노력은 두 자식의 어머니가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더구나 교장사업을 맡아보면서부터는 그의

사업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하지만 그는 교원들모두가 뜨거운 인정미를 가지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도록 하는것을 원칙으로 삼고 일해나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뿐만아니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원들속에서 능력과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고 실속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그는 자기자신부터가 교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열띤 론쟁도 벌리면서 이전보다 더 직심스럽게 배워나갔다. 그리고 교수참관과 보여주기수업에 자주 출연하여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교수를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기 위한 옳바른 방법론을 따라세우는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어 교원들의 강의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고있다.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꾸리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 콤퓨터원격강의실, 시청각실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등을 비롯하여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도 실속있게 진행하여 많은 성과가 이룩되게 하였다.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그는 30여년을 이렇게 후대교육사업에 자신을 묵묵히 바쳐왔다.

어느덧 그의 눈가에도 세월의 주름이 잡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밑거름이 되여 조국을 빛내이는 무성한 열매들을 가꾸어가는 그의 모습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글　본사기자 김대철
사진 본사기자 최유성

유모아

범에게 물려가면서

아버지가 범에게 물려가니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

아들이 칼을 들어 범을 내리찍으려 하는데 범에게 물린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얘야, 발통을 찍어라. 몸통을 찍으면 가죽이 못쓰게 되니 값이 떨어진다.》

믿음직한 경공업 기술인재양성기지

평양에 경공업부문의 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이 있다.

주체48(1959)년 9월에 창립된 때로부터 대학은 현대과학기술을 소유한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들을 수많이 키워내고있다.

대학에는 식료공학부, 방직공학부, 일용화학공학부, 기계공학부, 종이공학부, 공업경영학부와 종합분석소, 일용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단위들이 있다.

대학은 나라의 경공업부문의 현대화와 제품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다.

정문에 들어서니 최근 대학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속보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전국전공과목교원 외국어교수경연에서 우승, 제6차 전국대학생피복설계경연에서 특등, 제1차 기술대학부문 대학생외국어경연에서 1등…》

우리는 대학의 한 일군을 만났다.

그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대학을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과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교육사업의 현대화를 다그치는데 힘을 넣고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대학으로 안내하였다.

푸른 주단을 펼쳐놓은듯 한 운동장을 둘러싸고 산뜻하게 꾸려진 여러 호동의 교사들과 박사원, 기숙사, 식당, 부문별연구소들은 대학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대학에서는 원격교육망을 형성하고 원격교육실을 통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대학의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에 기초하여 현대적인 직관연시수단과 생동하면서도 흥미있는, 원리적이면서도 통속적인, 론리성과 설득력있는 교수방법을 리용하여 학생들이 그날 배운 지식을 그날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고있다.

그리고 훌륭하게 꾸려진 부문별실험실들에서 학생들이 배운 전공지식을 공고히 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있을뿐아니라 그들이 실지 나라의 경공업공장과 기업소들에 나가 배운 지식을 다지고 나라의 경공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있다.

지난 기간 대학의 교원들과 연구사, 학생들이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껌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등 여러곳에 나가 설비

와 생산공정의 현대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것이 그 실례로 된다.

뿐만아니라 전국각지의 종합식료공장들에 나간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설비제작과 새 제품개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 대학의 교원, 연구사, 학생들은 현대적으로 꾸려지는 세포등판축산물가공공장과 안주기름골가공공장, 강계포도술공장, 락랑감자가공공장들에 나가 설비의 현대화와 질좋은 제품생산을 위해 연구사업을 벌리고있다.

대학에서는 기능성방직제품개발기술, 기능성식료품개발기술, 나노식료품개발기술, 최신기계팔프생산기술, 일용품재료의 나노화, 초중합물의 리용 등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있다.

우리가 방직 및 피복공학실험실에 들렸을 때였다.

실험에 열중하고있는 방직공학부 학생들을 만날수 있었는데 이들속에는 지난해 전국대학생피복설계경연(3, 4차원설계경연)에서 특등을 한 학생들도 있었다.

우리와 동행한 대학의 일군은 대학에는 언제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지성을 바친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를 비롯한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의 마음도 깃들어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대학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많은 설비들을 기증하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주체85(1996)년 1월, 이 대학은 오늘과 같이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으로 명명되였다.

글 본사기자 김학철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실험과 실습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다져간다.

다시 찾은 모습

《솔직히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본래의 모습을 다시 찾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희망보다도 절망이 더 앞선 저였던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고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속에서, 얼마나 고마운 제도에서 살고있는가를 다는 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속에 병원문을 나서며 강명숙녀성이 한 말이다.

지난해 어느날 보건성 구강종합병원 미용외과에서는 순천시의 보안원들이 보낸 한통의 편지를 놓고 의사협의회가 있었다.

편지에는 자기들이 일하고있는 지구의 강명숙녀성이 뜻밖의 사고로 얼굴이 흉하게 이그러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있다는것과 의사선생님들이 그에게 본래의 얼굴모습을 다시 찾아줄수 없겠는가 하는 절절한 부탁이 담겨져있었다.

혈육도 아닌 평범한 녀성의 마음속고충을 자기들의 아픔으로 여기고 애쓰는 인민보안원들의 진정이 의사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그러나 치료는 역시 치료여서 협의회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는 한 녀의사가 있었다.

《그 환자를 제가 맡아 치료하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박사원을 졸업하고 병원에 배치되여 지난 기간 환자치료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박금선이였다.

그렇게 되여 강명숙녀성은 지난해 5월말부터 보건성 구강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였다.

강명숙환자를 치료하던 나날에 (2013. 8)

입원 첫날 환자를 구체적으로 진찰하는 금선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도 그럴것이 환자의 상태는 생각했던것보다 더 험했던것이다. 눈가장자리와 눈섭의 형태가 없어지고 밀리워쳐진 살가죽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웠을뿐아니라 정수리와 얼굴의 여기저기에 흠집자리가 있었으며 어떤 상처는 채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에 수술칼을 대는 조건에서 단 한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되였다.

(하루빨리 강명숙녀성에게 삶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안겨주자.)

그는 수술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최신의학과학기술자료들을 탐독하였고 강명숙녀성과 류사한 환자들의 림상치료경험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과의 의사들과 함께 치료기일을 앞당기면서 환자의 얼굴을 본래의 상태로 만들어줄수 있는 방도를 찾아 집체적협의를 거듭하였다. …

드디여 첫 수술을 하는 날이 왔다.

4시간에 걸치는 1차 수술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본래의 모습을 완전히 되찾아주자면 여러차례의 수술을 더 하여야 했다.

그는 매일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빨리 회복되는데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의료일군들뿐이 아니였다.

보안원들이 수술이 진행될 때마다 먼길을 달려와 강명숙녀성에게 힘을 주었고 그가 집걱정을 할세라 그의 가정살림까지 세심히 돌봐주었다. 수술후에는 상처가 아무는데 좋은 여러가지 약과 음식들을 그에게 안겨주었다.

정성으로 이어진 80여일간은 이렇게 흘러갔다.

4차에 걸치는 수술끝에 강명숙녀성은 마침내 자기의 모습을 되찾게 되였다.

자기를 바라보며 그리도 기뻐하는 담당의사 박금선을 비롯한 병원의 의료일군들과 보안원들의 모습을 보며 강명숙녀성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운 영웅도 아니고 소문난 혁신자도 아닌 이 평범한 녀성을 위해 그처럼 진정을 다 바치고 사랑과 정을 기울여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밖에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구나.)

지난해 8월, 강명숙녀성은 본래의 얼굴모습을 되찾고 정든 집으로 돌아갔다.

본사기자 변진혁

언어와 민족문제

—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수, 박사 양하석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언어와 민족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자리를 같이하였다. 언어는 민족문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한다.

양하석: 그렇다. 언어는 민족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민족은 피줄과 언어, 령토와 문화생활의 공통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집단이다. 그가운데서도 언어는 피줄과 함께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중의 하나이다. 한령토안에서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하나의 민족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활동은 언어를 떠나 생각할수 없으며 그들의 호상관계도 언어의 역할을 떠나서 이루어질수 없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민족을 동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수단으로 삼은것이 바로 언어이다. 지난 세기 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조선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사람들의 성과 이름까지도 《창씨개명》의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으려고 책동하였다. 더우기 나라의 분렬이 지속되고있는 지금 남조선에서 민족어의 이질화가 커지고있다.

때문에 언어는 민족을 특징지어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기자: 언어는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감을 북돋아주는 위력한 수단이고 유력한 문화적재부이다. 언어의 민족성을 고수하고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민족어의 순결성을 지킬수 없다.

양하석: 옳은 말이다.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민족적슬기가 깃들어있는 우리 말은 가장 과학적인 고유문자체계를 가지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준다. 우리 말은 음절조성능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발음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우리 말과 글로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 말의 발음도 거의 마음대로 나타낼수 있다.

우리 말은 풍만한 어휘구성과 상징어체계 및 그로부터 파생된 개념어체계를 가지고있어 그 어떤 기묘하고 섬세한 감정정서도 잘 나타낼수 있다.

또한 례의범절을 똑똑히 나타낼수 있기때문에 인간륜리도덕을 명시할수 있는 우점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은 우수하고 풍부하기때문에 민족적자부심과 긍지감을 북돋아주며 민족의 부흥발전과 강국건설의 힘있는 무기로도 된다.

기자: 언어사용에서 주체를 세우는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본다.

양하석: 민족의 자주성은 곧 주체성이다.

우리가 언어사용에서부터 주체를 확고히 세워야 사람들을 주체형의 인간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잘할수 있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사업도 주체의 요구대로 할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은 문화어를 적극 살려나가는것이다. 문화어의 사용은 민족어의 순결성을 지키고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말의 표준문화어는 평양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조선어의 표준인 평양말을 사랑하고 즐겨써야하며 어휘가 풍부하고 표현이 다양한 우리 말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언어생활에서 우리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이나 표준어가 아닌 말이 섞여들어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언어생활에서 철저히 주체성과 민족성을 살려나가야 한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며 정보산업시대이다.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력, 협조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다른 나라 말이 흘러들어오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는 이에 맞게 표준문화어인 평양말을 적극 살려쓰면서도 외국어표기로 되는 국제적단위를 비롯한 고유명사들을 적중히 잘 써야 한다.

우리는 우리 말과 글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가장 과학적인 우리 말과 글을 더욱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적극 기울이겠다.

* * *

신비한 나라 조선

지난 7월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평화활동가 브라이언 베커 반전반인종차별행동 사무총장은《조선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속담이 딱 맞는 나라》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서방의 리기적인 선전에 익숙된 사람들도 같은 환경에서라면 누구나 동일한 느낌일것이다. 나역시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의 시각을 가지고있었다.

몰리해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에 기인된것임을 나는 근래에 여러차례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깨닫게 되였다. 그래서 오늘 한생 숙명으로 알고 사는 고통과 혐오와 상반되는 현실에 대해 말하려고 한다. 그것은 세계에는 있고 조선에만 없는것이다. (필자는 이 글을 지난해 9월에 썼다.)

집값을 모르는 사람들

평양비행장을 떠나 시내로 들어오며 생각한것은 먼저 주민들이 사는 집을 방문하는것이였다. 집값은 얼마이며 호화주택의 주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가.

내가 찾은 집은 평양에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살림집이였다. 힘든줄 모르고 다섯집이나 돌아보았다. 그렇게 훌륭한 집을 거저 가졌다고 하기때문이였다. 코끼리가 하늘을 난다는것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였다. 집을 공짜로 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더 큰 의혹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집주인이라는것이였다.

연방 감탄하며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 구역원림사업소에 다닌다는 안주인이 내 마음을 넘본듯 대체 외국에서는 집값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것이였다.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천진한 아주머니에게 170㎡짜리 집을 사자면 일반 근로자가 100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살수 있다는것을 어떻게 말해준단 말인가. 신사연 하는 나자신도 아직 제집이 없다고 차마 입을 뗄수 없었다. 수십년간의 세방살이고행이 북받쳐서였다.

그들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이였다. 태여나서부터 국가적시책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과 돈의 멍에를 지고 사는 사람들의 운명은 같지 않았다. 공화국주민들은 참말로 국가덕에 아무 걱정없이 호사하고있었다.

그들은 맨하탄의 마천루가 있는 곳에 20%의 사람들이 집을 가지지 못하고있다는것과 이남의 주민세대 45%가 집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있다는것을 모를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혹 서방이 집값을 모르고 사는 북의 실상을 그토록 오도하고싶어진 까닭이 아닌가싶다.

돈을 내지 않고 담당의사를 두다

나는 공화국을 방문하기 앞서 세계의학학보에서 기이한 자료를 읽었다. 조선에서는 의사호담당제가 실시되고있으며 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다섯호주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이였다. 무상치료도 놀라운데 예방치료까지 무상이라니 믿을수 없었다. 그러나 학보에는 명백히 《조선로동당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무상치료제는 1950년대부터 실시되였으며 의사담당구역제는 1961년에 그 실시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서술되여있었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이후 호담당제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전쟁이 한창이던 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그후 국가가 예방치료까지 떠안았다는것은 손익계산법의 기준이 철저히 인민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생활이 곧 돈의 함수인 자본주의사회에 체질화된 사람으로서 재력가들에게나 가능한 담당의사를 공짜로 두고있다는 희한한 사실을 간접체험하기에는 성차지 않았다. 이것이 자료속의 조선을 상상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게 된 리유였고 공화국에 대한 려정에서의 주요관심사였다.

나는 언제인가 주조 세계보건기구 대표 에이길 쏘렌센에게서 《보건제도, 보건체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큼 째인 나라는 없다. 정말 나무랄데 없다.》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리상사회를 보려거든 조선에 가보라고 한 미국의 빌 그라함목사의 고견이 떠올려지는 순간이였다. 조선의 보건제도에 대한 그리스도교신자로서의 적중한 표현은 내가 동경하는 에덴동산 그자체였다.

돈의 액수에 따라 의료봉사등급이 규정되고 1%에게 바쳐지는 써비스를 굳이 문명사회의 징표로 여긴다면 이것은 모순중의 모순이다. 종합검진에 400US$, 하루입원비가 평균 300US$인데다 맹장수술비 5 000US$, 자궁암수술비 3만US$, 뇌수술비 15만US$에 달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음을 택해야 한다.

통일을 희망한다

나는 고국에서 수만리 떨어진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산다.

이국땅에 태를 묻고 자라서 그런지 TV를 보다가도 고국에 대한 말만 나오면 가슴이 울렁이군 한다.

평시에 나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아버지, 어머니는 림종의 순간에도 고향이 있는 고국에 가보고싶다는 유언을 남기였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져 나는 지난해 9월 마음먹고 고국을 방문하였다.

한주일남짓한 방문기간 나는 참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평양에 도착하는 순간 고국의 인민들과 우리 말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대번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곳이 바로 내 민족이 사는 땅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졌다.

이러한 충동은 숙소인 평양의 해방산호텔에서 거듭 받게 되였다. 그곳 식당에서는 로씨야에서도 우리 동포들이 즐겨먹는 김치와 국수를 식탁마다에 올려주었고 호텔의 모든 봉사원들은 우리가 명절날마다 입군 하는 치마저고리를 입고있었다.

비록 사는 곳은 서로 달라도 식생활도, 옷차림도 꼭 같은 그 모습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와 피줄을 가지고 반만년을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방문기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참관하면서도 느낀바이지만 슬기롭고 재능있는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음식과 옷차림뿐아니라 태권도와 씨름, 윷놀이를 비롯한 민족체육, 민속놀이도 적극 장려하면서 오랜 세월 자기의 민족성을 꽃피워왔다.

바로 이런 민족이 지난 세기 외세에 의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늘까지 근 70년동안 분렬의 고통을 당하고있다.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삼천리강토의 도로와 철길이 뭉청 끊어지고 가족과 친척, 친우들의 래왕이 중단되였다.

북과 남의 분렬은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군의 북침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군사적대결로 이어지고있다.

이 모든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다. 이런 고통이 더는 후대들에게 물려져서는 안된다.

우리 민족은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지난해 7월, 모스크바에서 로씨야와 중국, 일본, 미국, 카나다를 비롯한 해외각지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의 대회가 열리였는데 거기에서는 통일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왔다.

지금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마음과 힘을 서로 합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세대 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이 고국에 대해 시비하고 헐뜯는 일부 서방나라들의 허위선전에 속지 말고 고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라지오나 TV를 통해 고국에 대해 알려고 많이 노력하여왔지만 직접 고국을 방문하고보니 지금껏 내가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있었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나는 동포들에게 민족을 위해 살려거든 먼저 고국에 가보라고 권고하고싶다.

앞으로 나는 자식들이 민족성을 고수하고 민족의 통일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도록 애쓰겠다.

나는 통일을 열렬히 희망한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정 안나

따라서 서방이 《인권문제》를 놓고 공화국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있는것은 지구상에서 치료비없이 생명을 담보해주는 진정한 인권보호국을 말살하기 위한 유치한 행위로 보는것이 틀리지 않을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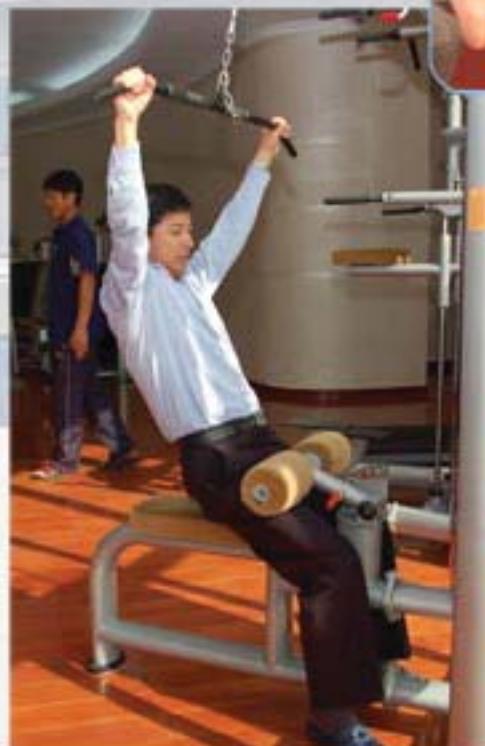
재미동포 리경실

고국방문

— 통일거리운동쎈터를 찾은 재중동포들 —

조국을 방문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일군들과 지구협회일군들을 비롯한 재중동포들이 통일거리운동쎈터를 참관하였다.

운동쎈터에는 60여종에 130여대의 운동기재들과 현대적인 치료설비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져있다. 쎈터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동포들은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였다.

최환룡을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달리기운동기재, 자전거운동기재 등 체력단련기재들을 리용하고나서 젊음을 되찾은것 같은 기분이라고 말하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발기와 구상에 따라 세워진 통일거리운동쎈터를 참관하면서 동포들은 변모되는 조국의 모습, 나날이 향상되여가는 인민들의 생활모습에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그이의 천품

지난해 2월 중국의 연길에서 진행된 광명성절 경축행사때였다.

그때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집들이한 창전거리의 살림집들을 방문하신 내용을 수록한 기록영화를 정말 감명깊게 보았다.

시종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그이는 참으로 소탈하고 인자하시였으며 극진하시였다.

그리고 그이와 한자리에 앉아 행복에 겨워있는 세 가정의 사람들은 모두 그이와 늘 함께 사는 한집안식구처럼 느껴졌다.

그 모습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감동적인 화폭이였다.

부모의 사랑과 정을 전혀 모르고 남의 집에 얹혀살아야만 했던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범한 로동자부부의 가정에 들리시여 그들의 새집들이를 축하하여 술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아들을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고 머리도 쓸어주시면서 그림그리는 방법도 하나하나 배워주시며 친어버이의 사랑과 정을 다 부어주실 때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길 없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정녕 그이는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정을 천품으로 지니신 특이한 분이시였다. 몸은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어도 나의 마음은 늘 조국에 가있다.

그래서 TV에서 조국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방영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군 한다. 그럴 때마다 그이를 만나뵙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은 최은복의장과 천재련, 김영녀동포들이 부럽기도 하고 나에게는 그런 영광의 날이 과연 언제 올가 하는 생각이 간절해진다.

자나깨나 한번만이라도 그이를 뵙고싶은 간절한 소원, 꿈결에도 그이품에 안기는 마음속소원을 풀 날은 꼭 오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녕안시 부지부장 박상진

주작봉마루에서 받은 감동

나는 아름다운 대성산의 주작봉마루에 올라 큰 감동을 받았다.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한 성전에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생각이 깊어지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그곳에는 사령부를 목숨으로 사수한 오중흡동지와 원쑤들에게 두눈을 잃고도 사형장에서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친 최희숙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항일혁명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다. 그렇게 수많은 유명무명의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일제와 끝까지 싸워 조국을 찾을수 있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어린 자식을 남의 집에 맡기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선 녀성들에게 머리가 숙어진다. 그들이 지금 살아 고국의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참으로 대성산혁명렬사릉은 혁명선배들이 지녔던 정신을 후대들이 따라배울수 있게 하는 곳이다.

그들의 투쟁정신을 본받는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하다.

후대들이 선렬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이어나가게 하는 정신이 바로 조국을 사랑하도록 하는 원동력으로 되기때문이다.

고국에서는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나의 세 아들이 모두 의사인데 그들은 고국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고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나의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우리 자식들과 함께 고국에 와서 그들에게 강성조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외에서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한몸바쳐나가도록 하겠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정 로라

사 화

집현전에서의 독서력

서거정이 어느날 저녁 집현전(조선봉건왕조시기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저술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대의 이름난 학자들을 모아둔 중앙기관)에서 밤경비를 서고있었다.

고요가 집현전의 어두워진 뜰에 내리덮이였을때 《어험, 어험》 하는 마른기침소리가 났다.

서거정이 등불앞에서 보고있던 책으로부터 눈길을 방문쪽으로 돌리면서 물었다.

《거 누구요?》

기침하던 목소리가 닫겨있는 문밖에서 들려왔다.

《청을 드릴 일이 있어서 온 선비올시다.》

서거정이 방문을 열어보니 미끈하게 생겼으나 그다지 건강해보이지 않는 청년이 서있었다.

《자네는 누군고?》

《예, 저는 성일재(성임의 호)의 동생 성간이옵니다.》

서거정은 놀라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성임은 서거정과 동년배일뿐더러 1438년에 성임이 시마시(진사, 생원을 뽑는 과거)에 합격할 때 서거정은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더구나 성임은 세종집권시 서거정과 함께 집현전에서 일한 사이였다. 성임에게 벌차고 글욕심많은 동생이 있다더니 이 청년이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거정은 다시 물었다.

《편히 앉게. 그래 무슨 일로 저녁늦게 찾아왔는가?》

《예, 집현전에 요즈음 희귀한 책이 새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었사와 그 책을 한번 보게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려 왔습니다.》

서거정은 언젠가 성임이 웃으면서 자랑삼아 하던 말이 생각났다. 성간은 글공부에 마음을 붙인 이래로 어찌나 책을 파고드는지 집에 있는 적지 않은 책들을 다 읽어본 다음부터는 어느 친구, 아무개선비의 집에 귀한 책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무작정 달려가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보고야만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아는것이 자기보다 많다는 자랑이였다.

그 《진드기》가 이밤 자기에게 달라붙은 셈이다. 책도적은 도적이 아니고 책욕심은 사욕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서거정으로서는 이런 《진드기》가 싫지 않았다.

《자네 코가 몹시 예민하구만. 이 집현전에만 보관되여있는 책까지 냄새를 말았으니 말일세.》

서거정은 웃고나서 일부러 딱한것처럼 말을 해보았다.

《그런데 좀 난처한 일이 있네. 이 집현전규률이 책은 마음대로 외부에 빌려주지 못하게 되여있으니 어쩐다?》

《그런 귀중한 보물을 어찌 빌려내가겠습니까. 보게만 해주십시오. 집현전 뜰에서라도 오늘밤중으로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응? 그렇게 량이 많고 내용이 까다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알수 있을가?》

《알고 모르고는 저에게 달렸으니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건넌방에서 읽어보게나.》

서거정은 보고싶어하는 책을 찾아주었다.

그가 자리를 펴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간은 단정하게 앉아서 책에 정신을 쏟아붓고있었다. 서거정이 한잠 자고 깨여서 보아도 성간은 초저녁에 앉은 자세그대로 책에 열중하고있었다.

놀라운 정열이였고 무서운 독서력이였다.

날이 밝을 때 성간은 다 읽은 책을 서거정에게 돌려주면서 하루밤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인사는 말로 하는것이 아니네. 읽은책 내용을 들려주어야 나도 배울게 아닌가.》

《그럼 제가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훈장앞에서 시험치는 셈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간은 책의 체계와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줄줄 외우는것이였다. 과연 다방면적으로 독서하고 비상한 기억력으로 인식하는 성간의 재주와 열정은 탄복할만 하였다.

서거정은 탄복한 심정에서 진심으로 한마디 권고하였다.

《자네가 그렇게 밤잠도 잊고 공부하는것은 좋으나 그러다가 몸을 상할가 근심이네. 부디 몸을 돌보면서 공부하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무골충으로 오래 살기보다는 잠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살고싶습니다.》

성간은 어줍게 한마디 하고 돌아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얼마후 성간도 집현전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　　　*　　　*

조선봉건왕조

조선봉건왕조는 1392년부터 20세기초까지 500여년간 존속해온 조선력사상의 마지막봉건국가이다.

1388년 배신적인 《위화도회군》을 계기로 권력을 장악한 리성계일파는 왕권탈취를 위한 제반조건을 마련한데 기초하여 1392년 7월 근 500년간 존속해온 고려왕조를 뒤집어엎고 새 왕조를 세웠다. 그리고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력사에서는 이를 조선봉건왕조라고 부르고있다.

왕권을 탈취한 리성계일파는 저들의 정치적안정을 도모하며 중앙집권적봉건국가의 체계에 맞게 수도를 꾸리기 위하여 1394년 10월 개경(개성)으로부터 한양(서울)으로 수도를 옮기였다.

새로 성립된 조선봉건왕조 역시 이전의 봉건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량반관료들이 다수의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하여 만든 반인민적이며 관료적인 정권이였다.

조선봉건왕조의 력사는 크게 중세시기와 근대시기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

조선봉건왕조 전반기(중세)는 건국 초기로부터 16세기까지를 포괄한다.

이 시기에 조선봉건왕조는 중앙집권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봉건통치체계를 재편성하고 나라의 정치경제적, 법률적기초를 마련하였다. 또한 1419년 쯔시마원정을 단행하고 일본해적(왜구)의 침략을 종식시켰으며 북쪽으로는 녀진족의 침략을 쳐물리치고 압록강, 두만강연안일대에 새로운 행정군사단위로서 4군 6진을 설치하여 나라의 령토완정을 공고히 하였다.

한편 이 시기 세계최초의 측우기의 발명, 우리 민족고유의 글자인 훈민정음의 창제 등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여 1467년 함경도농민전쟁이 일어났고 그후 전라도, 황해도지역에서도 큰 규모의 농민폭동이 전개되였다.

16세기에 이르러 봉건통치배들사이의 추악한 권력다툼으로 말미암아 봉건통치는 더욱 문란해졌고 나라의 군사력은 거의 무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여 봉건국가는 점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과 군인들은 근 7년간에 걸쳐 벌어진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에서 용감히 싸워 일본침략자들을 쳐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지켜냈다.

조선봉건왕조 후반기는 임진조국전쟁이후인 17, 18세기 그리고 19세기 60년대이전시기를 포괄한다.

17세기에 들어와 우리 인민은 두차례에 걸친 외세의 침략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냈다.

이 시기 금속화페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류통되기 시작한것을 비롯하여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고 광업, 수공업분야에서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발전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이르러 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도 힘차게 벌어졌는데 평안도농민전쟁(1811—1812년), 진주농민폭동(1862년)은 봉건통치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 대표적인 투쟁이였다.

이 시기에 와서 점차 심화되던 봉건제도의 문란과 위기는 19세기초부터 60년간 계속된 안동김가의 세도정치와 카톨릭교의 침투 등으로 일층 심각화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변화와 봉건제도의 위기를 반영하여 17—19세기 새로운 사상조류인 실학사상이 대두하여 발생발전하였다.

19세기 60년대이후 조선봉건왕조의 력사는 근대사에 속한다.

19세기 중엽은 아직 미약하지만 자본주의적관계가 점차 봉건제도를 무너뜨릴 새로운 힘으로 자라나고있던 시기였으며 유미자본주의침략자들이 본격적으로 쳐들어오던 시기였다.

우리 인민은 1866년 미국침략선 《셔먼》호를 격침시킴으로써 근대사의 첫페지를 빛나게 장식하였으며 같은해에 있은 프랑스함대의 침략과 1871년에 있은 미국함대의 침공을 성과적으로 물리쳤다.

조선인민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은 일본침략자들이 1875년 《운양》호사건을 도발한 다음 1876년에 굴욕적인 《강화도조약》이 강압체결되고 나라가 점차 반식민지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1882년에 대규모적인 군인폭동(임오군인폭동)이 일어났고 1884년에는 나라의 근대화를 지향한 부르죠아개혁(갑신정변)이 일어났으며 1894년에는 대규모의 농민전쟁(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다. 이 농민전쟁의 압력에 의하여 봉건정부

야 화

정수동의 《불수산》이야기

정수동의 안해가 해산달이 박두하여 진통이 여간 아니였다.

정수동은 산모의 진통에는 《불수산》이란 약이 제일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얻기 위해 구리개에 있는 약국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는 부지런히 길을 가다가 두 친구를 만났다.

친구들은 정수동을 보자 마침 잘 만났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 말 좀 들어보게. 어제저녁 이 친구의 집에서 글짓기를 하다가 금강산경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구름과 산이 함께 솟았거니 어느것이 구름인지 산인지 알수 없구나 구름이 걷히고 산만 홀로 남으니 그 봉우리 일만이천일세>라고 시구를 읊는중에 불쑥 금강산구경생각이 간절해지는게 아니겠나. 그래서 오늘 길떠나기로 약속하고 아침 일찍 이렇게 떠나는중인데 마침 자네를 만났으니 우리 함께 가세. 그래, 어떤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하며 벌써 금강산에 다 온듯이 흥에 떠 벌씬벌씬 웃기부터 하였다.

《그리하세나.》

정수동은 두말않고 승낙하였다.

세사람은 그길로 곧 동대문밖에서 술을 기껏 마신 다음 금강산의 일만이천봉을 향하여 다우쳐 떠났다.

흥에 겨운 세사람은 홀옷차림으로 기기묘묘하고 맑고 청신한 금강산의 모든 경치를 차례차례 빠짐없이 구경하고 마시고싶은대로 마시고 즐기고싶은대로 다 즐기였다.

봄이 가고 가을이 가고…

철이 뒤바뀌고 세월이 흐르는것도 감감 잊고 그들은 금강산유람을 하였다.

그러던중 그들은 금강산구경보다 더 가슴벅차도록 통쾌한 일을 당하게 되였다.

그것은 정수동이 유점사에서 천개나 되는 부처의 손들이 가득 들어찬것을 보고 그제야 자기가 《불수산》을 구하러 떠난 일을 생각하게 된 때문이였다. 그들은 배를 그러쥐고 금강산이 떠나갈듯 한바탕 웃고나서 건들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정수동이 집으로 돌아오자 한가득 모였던 가족, 친척들이 환성을 올리며 기쁨에 겨워 맞이하였다.

그 광경은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돌아오기나 한것 같은 광경이였다.

어쨌든 정수동은 무슨 일로 일가친척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왁작 떠드는지 알수 없었다.

《오늘이 무슨 날이길래 이렇게 집에 다들 모이셨소?》

정수동이 이렇게 묻자 그중 좌상되는 사람이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아따, 이 사람아, 작년에 <불수산>을 먹이려던 자네의 안해가 순산을 하였는데 오늘이 바로 그 애의 첫돌이 되는 날이야.》

정수동은 그 말을 너무 믿기 어려워 안해쪽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성미가 얼마나 급하신지 <불수산>을 너무 빨리 지어오셨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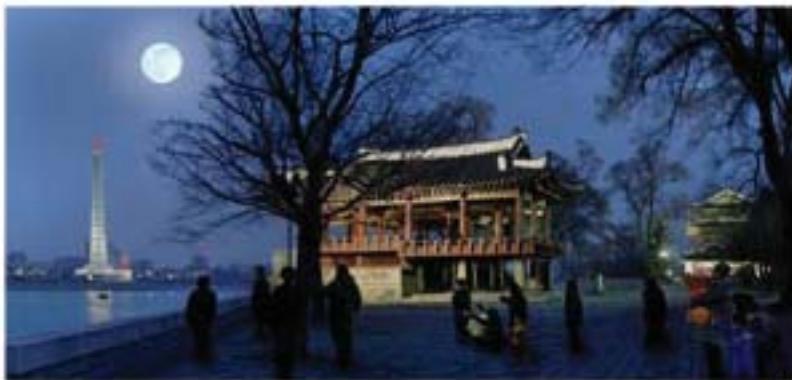
안해는 안해대로 정수동이를 보고 악의없이 빈정대였다.

《허허, <불수산>이 오기도 전에 애의 돌잔치를 차리는 당신의 성미 또한 여북하소구려.》

아무리 욕하고 빈정대도 정수동은 역시 정수동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 손벽치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후날 사람들은 심부름갔다가 늦게 오는것을 두고 《정수동의 <불수산>》이라고 불렀다.

는 1894년에 부르죠아개혁(갑오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일본침략자들의 방해책동으로 실패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청일전쟁,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조선침략에서 적수인 청나라와 짜리로씨야세력을 물리치고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1905년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07년에는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조선봉건군대해산을 강요하였다.

조선인민은 반일의병투쟁, 국채보상운동, 애국문화운동 등 각종 형태의 반침략, 반봉건투쟁을 세차게 벌리였으나 나라와 민족을 일제의 마수로부터 건져내지는 못하였다.

1910년 8월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왕조는 종말을 고하고 우리 인민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게 되였다.

력사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주성철

정월대보름명절과 연띄우기

정월대보름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려볼 때면 동포 여러분은 아마 어린시절 고향마을 언덕우에서 하얀 연을 띄우던 그 시절이 저도모르게 생각키워질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집집의 어머니들은 누구라없이 문창호지로 쓰려고 아껴두었던 종이로 정성스레 연을 만들어 자식들의 조그마한 손에 쥐여주군 하였던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 좋아 콩콩 뛰며 추운줄도 모르고 동구밖의 언덕우에 올라 누구의 연이 제일 높이 떴는가를 소꿉동무들과 겨루기도 하였을것입니다.

정월대보름을 가까이 하게 되니 그 시절을 그리며 추억하실 동포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조선민족의 슬기와 넋을 하얀 연에 실어보고싶은 마음을 안고 이렇게 《민족의 향기》란의 페지를 펼쳤습니다.

먼저 자라나는 새 세대 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민속놀이 연띄우기에 대한 표상을 다시한번 가져보기로 합시다.

연띄우기는 바람의 힘을 리용하여 종이로 만든 연을 하늘높이 띄우면서 노는 놀이입니다.

연이라는 이름은 연이 하늘높이 나는 소리개와 갈다고 하여 《소리개 연》자에서 생긴것으로 해석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설날이나 정월대보름명절이 오면 총각애들이 연을 높이 띄우는 내기를 하여왔습니다.

연띄우기는 흔히 초겨울에 시작되여 이듬해 추위가 가셔지기 전까지 계속되였습니다. 가장 성황을 이룬 때는 정초부터 대보름날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은 어린이들의 연띄우기명절이라고 할만큼 흥성거렸습니다.

연띄우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7세기에 벌써 연띄우기를 하였으며 고려 말엽에는 연을 군사적목적에 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이 평양성을 일시 강점하였을 때 계월향이 성안에서 김응서장군에게 연으로 적정을 알려주어 평양을 탈환하는데 기여하였다는 일화도 전해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연은 그 생김새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것은 장방형의 네모연과 가오리형의 연입니다.

연은 지방의 관습과 바람의 세기에 따라 여러가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장방형의 네모연은 길이가 너비보다 조금 긴 연입니다. 이 연은 그 표면에 그림을 그린것, 색종이를 붙인것, 색칠을 한것, 꼬리와 발을 단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황해도 장연지방에서는 관(모자), 나비, 박쥐, 제비, 경상도 통영지방에서는 거부기, 봉황, 룡 등을 형상하였습니다.

가오리연은 그 형태가 가오리처럼 생긴것인데 지방에 따라

낙지연, 가재미연, 꼬리연 등으로 불리웠습니다.
연을 만드는 기본재료로는 살과 종이, 실을 리용합니다.
연을 만들자면 종이를 일정한 모양과 규격대로 오리고 거기에 살을 붙인 다음 실을 매야 합니다.
종이를 비롯한 재료들은 될수록 공중에 높이 날아오를수 있게 가볍고 바람에 잘 견딜수 있는 질긴것이여야 합니다. 연살재료는 참대가 제일 좋지만 참대가 없으면 싸리, 수수대, 갈대같은것도 쓸수 있습니다.
연살을 붙인 다음 연줄을 3～5곳에 맵니다. 연실은 연이 높이 날아오르는데 지장이 없이 잘 풀리는 얼레(줄감개)에 감습니다.
연은 바람새만 좋으면 몇백m씩 띄워올릴수 있고 내리꽂히게 했다가 다시 높이 올라가게 할수도 있습니다.
정월대보름날 연에 자기의 이름과 난날같은것을 적어 날려보내고 다음날부터는 띄우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연띄우기는 새로운 형식의 연이 나타나 더욱 다양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연띄우기는 청소년들의 몸단련에 좋은것은 물론이고 자연현상에 대한 리해를 더 깊이하게 하며 수공능력도 키워주는 등 지적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민속놀이입니다.
이제 오는 정월대보름날 자녀들과 함께 연을 날리며 조국의 푸른 하늘가를 바라보실 동포여러분의 그 모습이 벌써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윤홍기

력사인물

실학자 류득공

류득공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관료, 시인, 실학자이다.
량반가정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여난 그는 봉건적인 신분차별로 하여 등용되지 못하고있다가 신분차별정책이 완화됨에 따라 규장각의 검서로 임명되여 도서편찬사업에 참가하였다. 풍천부사직을 비롯한 지방고을원으로 있을 때에도 검서의 관직을 겸하였다.
박지원(1737—1805년)에게서 글을 배웠으며 그의 영향밑에 실학자로 되였다. 실사구시(사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진리를 탐구한다는 뜻)의 립장에서 력사, 민속, 지리, 어학 등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으며 많은 저서를 남기였다.
류득공은 당대에 이름을 날린 리덕무(1741—1793년), 박제가(1750—1805년), 리서구(1754—1825년) 등과 함께 도서를 편찬하였고 사가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시들도 창작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들로는 《경도잡지》, 《발해고》 등을 들수 있다. 그는 저서들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력사, 지리연구에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발해의 력사와 삼국시기이래 우리 나라 왕조들의 수도의 력사, 경주지방의 풍속 등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민족사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발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서 긍정적역할을 하였다. 한4군위치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서 부정확한 리해도 있으나 그의 력사연구성과는 18세기의 편사학연구에서 좋은 자료로 된다.
그의 시가는 또한 한폭의 풍속도와 같이 생동하고 섬세한 묘사로 특징지어진다. 주로 자연풍경을 읊은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으나 근로하는 인민들의 생활에 공감을 표시한 시들도 있다. 특히 시 《농사집》에서는 새별을 이고 밭으로 나갔다가 해가 저물도록 일하는 농사군들의 괴로운 생활을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그러나 류득공은 한낱 선비로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관조적으로 대하며 미화분식하는 경향을 드러내였다.
민요풍의 시, 력사적사실에 기초한 영사시들도 썼다.
현재 전하는 《사가시》에는 그가 젊은 시절에 지은 시 100편이 실려있다. 류득공의 시들을 묶은 《랭재집》도 전해지고있다.

우리 나라의 6대명산

백두산의 해돋이

조국은 예로부터 산좋고 물맑아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워왔다.

산이 국토면적의 8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에는 아름다운 명산들이 많은데 그가운데서도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칠보산, 구월산, 지리산은 6대명산으로 손꼽힌다.

이 산들은 웅장함과 기묘함, 아름다운 자태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있다.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떠이고있어 그 이름도 백두산이라 불리우는 이 산은 량강도 삼지연군의 북부에 솟아있다. 해발높이는 2 750m이다.

백두산은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해방하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진 혁명의 성산이다.

조국의 모든 산줄기들은 백두산에서부터 뻗어내렸다. 하여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일러왔다.

태고적부터 여러차례의 화산분출과 그 진화발전과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백두산의 자연환경은 매우 특이하다. 화산분출과 관련된 지질과 지형, 고산지대의 자연환경과 결합된 식물

금강산 외금강의 구룡폭포

과 동물, 천지에 시원을 둔 수문학적동태, 부석분출과 고산성식물의 련관속에 형성된 토양 등 백두산의 자연요소들은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는 볼수 없는 독특한 련관속에서 변화발전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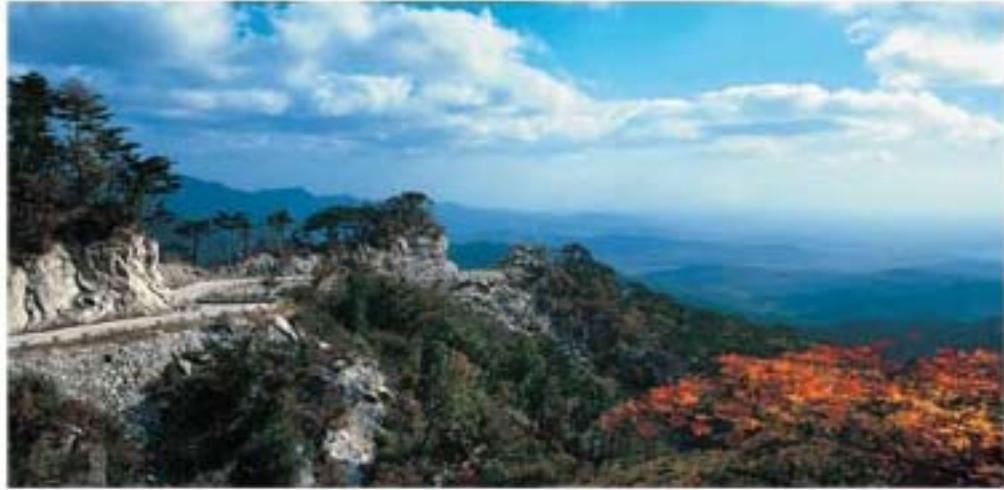
기후 또한 변화무쌍하다. 갑자기 비구름을 몰아오기도 하며 금시 온 누리에 찬란한 해빛을 뿌리기도 한다.

하비로암의 겨울 (묘향산)

금강산은 조선의 명산일뿐아니라 세계적인 명산으로 이름떨치고있다.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걸쳐 남북의 길이 60km, 동서의 길이 40km, 면적 530km²의 방대한 지역을 포괄하고있다.

자연미가 다양하고 지역마다 독특한 풍경을 이루고있어 크게 외금강, 내금강, 해금강으로, 그것을 다시 수십개의 구역과 동(계, 봉)으로 나눈다.

하늘을 찌를듯이 톱날처럼 늘어선 봉우리들은 1만 2 000여개나 되며 각양각색의 모양을 닮은 기암들, 거대한 층암절벽들과 서로 다른 깊은 계곡들 그리고 여기에 이루어진 수많은 담소와 못들, 절벽과 바위들을 감돌아 흘러내리는 구슬같은 맑은 물, 무지개를 이루며 쏟아져내리는 무수한 폭포들, 다양한 동식물과 록음 등이 서로 잘 어울려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 이러한 금강산은 산악미, 계곡미, 고원경치, 전망경치, 호수경치, 바다와 해안경치 등

칠보산 해칠보의 달문

구월산 탐승로의 일부

북금강으로 알려졌다. 산이름도 진귀한 일곱가지의 보물에 비기여 칠보산이라고 지어졌다. 여기에는 이 산의 주봉을 이루는 상매봉(1 103m)을 중심으로 해발높이 1 000m 안팎의 산들이 솟아있다.

을 다 갖추고있어 단순한 하나의 명승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명승을 한곳에 모아놓은 명승지의 집합체를 이루고있다. 그러므로 금강산은 오랜 력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풍악》, 《개골》, 《상악》, 《선산》, 《봉래》, 《기달》, 《널반》, 《중향성》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웠다.

묘향산도 우리 나라 명산들가운데서 손꼽히는 절승의 하나로 일러오고있다.

묘향산은 기묘함과 웅장함이 한데 어울린 명산으로 널리 알려졌다.

평안북도 향산군과 구장군, 평안남도 녕원군, 자강도 희천시의 넓은 지역을 포괄하고있는 묘향산은 해발높이가 1 909m이고 면적은 375㎢, 둘레는 300여리이다.

묘향산은 개척된 력사가 오래지만 11세기초부터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묘향산으로 불리웠다.

묘향산은 자연의 아름다움뿐아니라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이야기와 민족의 문화예술적기교와 창조적재능을 보여주는 문화유산들이 수많이 보존되여있으며 국제친선전람관이 자리잡고있어 명산으로서 그 이름이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여난 풍치로 하여 함

크게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지역으로 나뉘여진 칠보산은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맑은 물, 장쾌한 폭포와 담소, 바다가의 해안절벽과 기묘한 섬바위들, 사철 샘솟는 온천들로 하여 풍치가 매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특히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과 깊은 골짜기들, 기묘한 바위들과 절벽들이 온통 흰빛이여서 그야말로 겨울철의 칠보산은 신비경을 펼쳐보인다.

특이한 산악미, 계곡미를 자랑하는 구월산은 황해남도 북서부지역에 위치하고있다.

구월산은 단풍든 9월의 풍경이 하도 아름다와 그렇게 이름을 달았다고 한다.

깊은 골짜기들에는 구슬같이 맑은 물이 흘러내리며 물안개에 칠색무지개를 피워올리는 룡연폭포, 삼형제폭포를 비롯한 폭포와 담소들이 있다.

경상남도 함양군과 산청군의 경계에 솟아있는 지리산은 해발높이가 1 915m이다.

지리산은 웅장하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조선팔경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려있는 우리 나라의 6대 명산은 오늘도 조선민족의 자랑찬 재부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자랑하고있다.

본사기자

비렬한 《종북》소동

지금 남조선에서 하나의 류행처럼 불리워지는 말이 있다. 그것이 바로 《종북》이다.

《종북》이란 《북에 추종》한다는 말인데 이런 말은 그 어느 사전에도 없다. 그런것을 리명박역도와 극우익보수패당이 제멋대로 만들어내여 저들의 파쑈통치지반을 다지는데 써먹었다.

이러한 《종북》소동이 오늘날 남조선의 선행《정권》시기를 릉가하고있다.

남조선의 극우익보수패당은 《대통령선거》당시 정보원패거리들을 비롯한 수많은 인원들을 동원하여 인터네트에 야당후보들을《북에 추종하는 종북인물》로 모는것과 같은 여러 형태의 모략글들을 수없이 올려 여론을 조작함으로써 《선거》형세를 유리하게 만들었다.

현 남조선집권자가 《종북》소동의 《덕》으로 《대통령》자리에 올랐다는것이 남조선각계의 평이다.

집권 초기부터 《종북》소동에 재미가 든 괴뢰보수패당은 오늘날 저들의 반역적정체가 날날이 드러나고 저들의 통치가 위기에 처하게 되자 또다시 《종북》광풍을 일으키며 거기에서 출로를 찾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종북》소동은 동족을 걸고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테로이다. 괴뢰패당은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벌리는 초불집회에 대해서도 《종북세력의 배후조종》에 의한 사태라고 망발하고 반인민적악정에 대해 의견과 불만을 터뜨려도 《종북》으로 몰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여도 《종북》, 《선거》에서 저들이 락선되여도 《종북세력의 작간》이라고 떠들고있다. 지어는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남조선을 상징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종북》이라고 고아대고 나중에는 감히 북남수뇌상봉도 《종북》의 결과라고 악담질을 해대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주장과 량심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까지 《종북》의 감투를 쓰고 탄압과 박해를 당하는 몸서리치는 사태가 빚어지고있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괴뢰검찰관계자까지도 《종북》으로 몰리는 판이니 더 말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남조선각계는 1970년대의 《유신》독재가 되살아난것 같아 경악을 금할수 없다고 격분을 터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무차별적인 《종북》소동으로 하여 남조선사회는 그야말로 민주와 인권이 깡그리 유린말살되고 강권과 폭압이 란무하는 과거의 독재사회에로 완전히 되돌아갔다.

괴뢰보수패당의 《종북》소동은 반역《정권》의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단말마적발악이다. 괴뢰패당이 감행하고있는 《종북》소동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전적으로 가로막고있다. 《종북》이라는 그 말자체가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심과 거부감의 뚜렷한 표현으로서 동족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한사코 해치기 위해 발광하는 반통일세력들이 즐겨외우는 말이다.

남조선집권세력이 한편으로 《대화》와 《신뢰》를 제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종북》소동에 미쳐날뛰는것은 대화상대방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도발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동족대결을 고취하는《종북》소동이 계속되는 한 북남사이에 신뢰가 조성될수 없고 대화분위기도 설수 없다. 괴뢰패당이 감행하는 《종북》소동의 엄중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오늘도 지난 《유신》독재시대의 참상을 잊지 않고있다.

시대와 력사를 외면하고 사회를 수십년전의 독재시대에로 되돌리는 괴뢰패당의 비렬한 소동을 묵과한다면 자주, 민주, 통일은 고사하고 독재자의 발밑에서 피비린내나는 살륙을 당해야 할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용감히 일떠서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의 《종북》광풍을 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의 열풍으로 몰아내고 자신들의 념원을 실현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대철

판이한 인권상황

인간의 참다운 삶의 가치는 어떤 사회제도에서 사는가에 따라 서로 달라진다.

오늘 남조선괴뢰들은 자기들이 빚어낸 경제파국과 범람하는 사회악을 외면하고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다.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존엄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땅에서 공화국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것 자체가 참으로 어불성설이 아닐수 없다. 한줌도 못되는 부자들이 권력의 비호밑에 돈더미우에 올라앉아 권세와 향락을 누리는 남조선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이란 과연 있을수 있겠는가.

한방울의 물에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도 있듯이 남조선의 교육실태와 보건제도만 놓고 보아도 인권문제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알수 있을것이다.

최근 괴뢰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6개대학 입학생 2만 8 306명가운데 8 789명이 정기졸업을 한 반면에 1만 6 666명의 학생들이 적게는 1년, 길게는 4년 휴학하였다가 졸업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급증하는 휴학증가현상의 원인은 엄청나게 비싼 대학등록금때문이다.

현재 남조선에서 대학생들이 지불해야 할 년평균등록금은 《국립대학》의 경우 5 000US$,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무려 9 586US$로서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여기에다 교재와 학용품값, 하숙비까지 합하면 거의 2만US$에 달한다. 2012년 한해만 해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휴학을 신청한 대학생이 총 대학생의 18%에 달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때마다 후보자들이 《반값등록금》공약을 람발하지만 일단 《대통령》감투를 쓰고나면 그 공약은 하늘로 날아나고 오히려 《대학자률화》, 《대학민영화》정책 등으로 등록금은 더욱 껑충껑충 뛰여오르고있다. 대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시위투쟁을 벌리는것도 바로 등록금문제때문인것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생의 80%이상이 식당이나 공사판, 유흥업소에서 힘겨운 로동을 하고있다.

이와는 대조되게 공화국북반부에서는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을뿐아니라 소학교, 초, 고급중학교, 전문학교, 대학은 물론 사회전반에서 진행되고있는 모든 교육 그자체가 무료로 진행되고있으며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장학금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자기의 희망에 따라 마음껏 배우고있다.

대비할 여지조차 없는 북과 남의 인권상황은 보건실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음을 택해야 한다.

한번 종합검진을 받으려면 100～400US$의 검진비를 내야 하고 입원비는 하루 평균 100～300US$이다. 그리하여 부유층이 수백만US$씩 탕진하며 병치료를 받을 때 인민들은 돈이 없는탓에 치료를 받지 못하여 온갖 잡병속에서 고통을 받고있다.

공화국에서는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뿐아니라 인민들이 병을 만날세라 예방치료를 하여준다. 의사호담당제가 실시되여 담당의사들이 자기가 맡은 주민들의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다.

사회의 물질문화적재부가 전적으로 인민들자신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으며 모든 사회적시책이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기 위한것으로 되고있는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그 품속에서 인민들은 자식을 공부시킬 걱정을 모르고 병이 생겨도 입원비, 수술비, 약값에 대한 걱정을 모르며 살림집을 쓰고 살면서도 집세라는것을 전혀 모르고있다.

괴뢰당국의 반인민적교육정책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전범죄를 진 두 나라의 모습

예로부터 인류는 죄를 지었으면 속죄하고 고치는것을 하나의 도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과거의 범죄력사를 부정하다못해 정당화하는 행위들이 오늘도 계속 나타나고있다.

돌이켜보면 일제는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가장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감행하였다.

지난 세기 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시기에만도 수십년간에 걸쳐 포악한 민족말살, 략탈정책을 강행하였다. 일제는 840만여명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아시아정복을 위한 전쟁터와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몰았으며 무고한 사람들을 수많이 학살하였다. 그리고 석탄, 동, 연, 아연 등 지하자원과 나라의 국보들을 략탈하다못해 가정들에서 대대로 물려오던 놋그릇과 놋숟가락까지 빼앗아가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략탈해간 금만 하여도 수백t에 달한다.

하지만 일본은 그 죄에 대해 배상은 고사하고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다. 력사에 있어본적 없는 일제의 성노예범죄행위에 대한 태도만 놓고보아도 그러하다.

지난 시기 일본당국자들은 일제가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위안부》로 끌어다 무참히 짓밟고 살륙한데 대해 충분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느니, 이미 해결된 문제라느니 뭐니 하면서 그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지난해에도 일본당국자는 공개석상에서 《구일본군이… 인가에 들어가 위안부로 만들었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다.》고 떠벌였는가 하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조용한 마당에서 력사가나 전문가들이 론의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날 같은 전범국이였던 도이췰란드의 모습을 다시금 새겨보게 한다.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도이췰란드정부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동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파쑈도이췰란드에 끌려와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이전 강제로동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불하기로 하고 체계적으로 물질적배상을 하여왔다.

1950년 도이췰란드는 현재의 국적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쟁희생자에 한해서는 누구에게든지 배상을 할데 대한 법을 제정하였다. 그로부터 3년후에는 《나치스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한 보상에 관한 련방법》을 제정함으로써 전쟁희생자뿐아니라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까지 배상을 할것을 국제사회앞에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수십년간에 걸쳐 세계 80개 나라에서 살고있는 나치스시대의 강제로동피해자 151만 6 000명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도이췰란드정부는 이에만 그치지 않고 제2차세계대전시기 히틀러도배들이 강점지역들에서 략탈해갔던 문화재도 반환하였다. 그리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비롯한 국내인민들이 자기 나라의 수치스러운 과거력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였다.

과거범죄에 대한 도이췰란드의 책임적인 배상조치는 현재까지도 계속 취해지고있다.

도이췰란드와 일본, 두 나라의 모습은 너무도 판이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계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민들은 도이췰란드의 행동에 긍정적의사를 표시하고있지만 반대로 자기의 죄를 백방으로 변호하며 한사코 정당화하는 일본의 그릇된 행위에는 강렬한 항의를 보내고있다.

지금 일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저들의 과거를 부정하면서 그 막뒤에서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고있다. 일본의 곳곳에서는 지난날 힘이 약했던탓에 일제가 패망했다는 소리들이 공공연히 튀여나오고있으며 무력증강이 급속도로 다그쳐지고있다.

과거청산은 세계민심의 요구이며 대세의 흐름이다. 전범국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성근하게 반성, 사죄하고 청산하는것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에 대해 지닌 마땅한 의무이며 국제관례이다.

본사기자 조선일

북과 남에 존재하고있는 판이한 인권상황은 고통과 혐오를 운명으로 삼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복속에서 복을 모르고 사는 공화국의 인민들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것을 말없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려 해

매국반역적인 정체

제 버릇 개 못준다는 격언이 있다.

지난해 남조선에서는 제45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가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남조선각계에서 강력한 항의와 규탄이 비발치듯 하였다. 그들은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에 따른 부담으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면서 집권세력의 비굴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하지 않을것이라고 장담하던 군부가 그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될 경우 상상하지 못할 후과가 차례질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실로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꼬물만 한 민족적자존심도, 주대도 없는 꼭두각시들의 추태에 각계의 비난은 날로 높아졌다. 이에 바빠맞은 괴뢰국방부는 회의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가담을 검토한적이 없고 미국이 요청한 일도 없다고 변명하였다.

돌이켜보면 남조선괴뢰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조선반도의 《안보상황》을 거들며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해줄것을 거듭 미국에 요청하였다. 미국은 이에 리해를 표시하면서 전환시점에 대해 다시 론의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괴뢰들을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써먹을 궁리를 해온 미국에 있어서 이미전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하지 못해 안달아하는 그들의 추태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괴뢰패당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를 애걸할 때 흥미가 있는듯이 예정대로 추진하여도 《동맹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느니, 《전시작전통제권》을 저들이 가지고있는것은 《부담》이라느니 하며 딴전을 피웠다.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반환할것이라는 여론을 내돌렸다.

그러자 괴뢰당국은 김관진역도를 내세워 지난해 8월 미국방장관에게 재연기를 정식 구걸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끈질기게 매달렸다.

이러한 속에 열린 제45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에서 괴뢰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재연기를 다시금 애걸하였다. 미국은 괴뢰군의 《대응능력》 등을 평가한 기초우에서 그 여부를 결정할것이라고 밝히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여기에 진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제45차 남조선미국 《년례안보협의회》가 벌어지기 전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령관이라는자는 괴뢰들과의 《미싸일방위체계》개발을 운운하였다. 또 미국방장관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재연기를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에 《미싸일방위체계》가 기본이라고 떠벌였다. 이것은 그에 대한 뚜렷한 립증이다. 이전에는 그 무슨 남조선형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해 떠들던 괴뢰호전광들이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내에서 사용되는 사거리를 가진 미싸일을 도입하려 하고있는 사실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주목되는것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의 조건으로 남조선이 저들이 주도하는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할것을 요구하였고 괴뢰들은 코를 꿴인 송아지처럼 그대로 움직이고있는것이다.

하여 야당의원들은 《국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를 구걸한데 대해 《얼빠진 사대주의》라고 비난하면서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겨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들이댔다.

그러자 역도는 부끄러움을 느낄 대신 태연하게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가 행사해도 《주권포기는 아니》라고 수작질하였다.

외세에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까지 통채로 내맡기고도 창피와 수치도 모르는 이런자들에게 어떻게 민족의 피와 얼이 남아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재연기음모를 통해 괴뢰패당의 친미사대적이며 매국반역적인 정체는 다시금 명백해졌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외세에 의존하여 동족대결에 얼마나 미쳐날뛰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유선화

유 적

최 승 대

최승대는 모란봉에 있다.

최승대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주체35(1946)년 3월과 그후 여러차례에 걸쳐 찾으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있다.

최승대는 고구려시기인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716년에 고쳐지었다.

최승대는 높은 축대우에 성가퀴를 돌리고 그안에 세운 단층겹처마합각집이다. 정면 3간(7. 36m), 측면 2간(4. 67m)의 평면으로 되였으며 흘림기둥우에 2익공두공을 얹은 화려한 루정이다.

이 일대는 진달래가 많이 피여나고 매화나무, 측향나무 등이 소나무, 살구나무 등과 어울려 신비로운 절경을 이루고있다.

최승대는 오늘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소백수의 설경　　　본사기자 홍 훈

조종의 산 백두산기슭의 천고의 수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고향집앞을 흐르는 소백수이다.

광명성탄생의 력사의 그 이야기 전하여주며 소백수는 오늘도 눈덮인 속에서도 본색을 잃지 않고 흐르고있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382152
http://www.naenara.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